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자

-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분석 -

<목차>

I. 분석 배경과 내용	1
II.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율	2
III.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35

발행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주 소 072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35, 3층
전 화 02-312-7488
팩 스 02-312-1638
웹사이트 <http://www.workingvoice.net/>
이메일 kcwc@kcwn.org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조돈문, 조영선, 신승철
편집인 문종찬

목 차

- I. 분석 배경과 내용 1

- II.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율 2
 - 1. 전체 비정규직 2
 - 2. 고용형태별 특징 4
 - 3. 성별 특징 12
 - 4. 연령대별 특징 16
 - 5. 학력별 특징 19
 - 6. 산업별 특징 22
 - 7. 직업별 특성 29
 - 8. 기업 규모별 특징 32

- III.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35
 - 1. 임금 35
 - 2. 노동시간 39
 - 3. 근속기간 42
 - 4. 사회보험과 부가급부 45
 - 5. 노동조합 조직률 50
 - 6. 기타 노동조건 52

- 부록. 분석개요 54

표 목차

<표 1> 고용형태별 규모: 지난해와의 비교	3
<표 2> 고용형태별 비율: 지난해와의 비교	4
<표 3> 한국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구조 (2020년 8월)	5
<표 4> 연도별 고용형태별 규모	10
<표 5> 연도별 고용형태별 비율	11
<표 6> 성별 고용형태별 규모와 비율	15
<표 7> 연령대별 고용형태별 규모와 비율	18
<표 8> 학력별 고용형태별 규모와 비율	21
<표 9> 산업별 고용형태별 규모와 비율 (A~U 산업분류코드 부록 참조)	27
<표 10> 직업별 고용형태별 규모와 비율	31
<표 11> 기업 규모별 고용형태별 규모와 비율	34
<표 12> 연도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38
<표 13> 연도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41
<표 14>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속기간	44
<표 15>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 비율	46
<표 16>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가입 유형별 비율	46
<표 17> 고용형태별 건강보험 가입 유형별 비율	47
<표 18> 고용형태별 부가급부 적용 비율	47
<표 19>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51
<표 20> 고용형태별 교육훈련 경험,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52
<표 21> 고용형태별 임금형태 비율	53

그림 목차

[그림 1] 비정규직 규모 추이	2
[그림 2] 비정규직 비율 추이	3
[그림 3] 비정규직 중분류 형태별 규모와 비율 추이	6
[그림 4]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규모와 비율 추이	7
[그림 5] 성별 고용형태 비율	12
[그림 6] 고용형태별 성별 비율	13
[그림 7] 성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13
[그림 8] 성별 임시파트타임 규모 추이	14
[그림 9]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17
[그림 10] 연령대별 임시파트타임 규모 추이	17
[그림 11]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19
[그림 12]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추이 (2004~2020)	23
[그림 13] 직업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2005~2020)	30
[그림 14]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2005~2020)	33
[그림 1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차이	35
[그림 16]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월평균 임금 비율 추이	35
[그림 17]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정규직 대비 월평균 임금 비율 추이 (2005~2020)	36
[그림 18]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비율 추이	37
[그림 19]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비율 추이 (2005~2020)	37
[그림 2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 추이 (2005~2020)	39
[그림 21]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추이 (2005~2020)	40
[그림 2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속기간 추이	42
[그림 23] 고용형태별 근속기간 추이 (2005~2020)	43
[그림 2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 추이	48
[그림 2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부과급부 적용률 추이	49
[그림 2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51
[그림 27]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기타 노동조건 추이	53

<요 약>

1. 2020년 8월 비정규직 규모는 848만 3천명으로 전년 대비 5만 3천명(-0.6%) 감소했다.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41.5%로 전년과 동일하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9년 증가했다가 올해 다시 감소했다.
2. 2020년 8월 임금노동자와 정규직 규모가 2001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0.5%씩 감소했다.
3.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12만 5천명, 5.0%)와 상용파트타임(1만 5천명, 5.1%), 임시파트타임(4만 4천명, 2.0%), 호출노동(13만 6천명, 20.1%), 재택노동(3천명, 7.3%)이 증가했고,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반임시직(▽26만 5천명, ▽17.7%)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3. 성별로는 남성(1만 2천명, 03%)은 증가하였고, 여성(▽6만 5천명, ▽1.4%)은 감소하였다. 연령대별로는 10대~50대는 모두 감소하였고, 60대(10만 7천명, 7.6%)와 70세 이상(8만명, 11.2%)은 증가하였다.
4. 고용형태 세부별로 보면, 여성은 기간제(10만 3천명, 8.8%)와 단시간(상용파트타임=1만 4천명, 5.9% / 임시파트타임=5만 5천명, 3.4%)에서 남성(기간제=2만 2천명, 1.6% / 상용파트타임=1천명, 1.7% / 임시파트타임=1만 9천명, 3.3%)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5.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16만 4천명, 17.1%), 공공행정국방(4만명, 10.6%), 출판영상방송업(2만 1천명, 18.7%)은 증가 폭이 컸다. 반면, 숙박음식점업(▽13만명, ▽12.1%), 부동산임대업(▽2만 5천명, ▽10.9%), 금융보험업(▽3만명, ▽10.0%), 교육서비스업(▽5만 1천명, ▽7.4%)은 감소했다.

6.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72.8만원, 시간당 임금은 11,604원이다. 정규직 대비 비율은 월평균 임금이 51.5%로 0.3%p 감소했고, 시간당 임금이 62.8%로 0.1%p 감소했다. 주당 노동시간은 비정규직(▽1.1)이 정규직(▽0.4)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정규직이 0.1%p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동일했다.
7.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고용 규모와 노동조건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산업 간 불평등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 임금이 최근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 또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된 원인은 비정규직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취약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악영향이 비정규직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8년 16.4%, 2019년 10.9%에서 2020년 2.9%로 낮아진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더욱 낮아졌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 정부가 공약으로 세운 비정규직 체로 시대, 노동 존중 사회, 소득주도성장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 재정립과 추진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노동기본권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구조조정과 실직, 무급휴직 등이 발생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불공정 하도급·프랜차이즈 구조 개선,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노동기본권 확대 등의 개혁 조치를 추진해야 하며, 대통령이 선언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끝으로, 통계청 비정규직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상당수 비정규직이 공식 통계에서 누락되어 있으며,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743만명, 본 센터에서 발표 848만명보다도 훨씬 클 가능성이 크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비전형 고용형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I. 분석 배경과 내용

통계청은 2001년부터 매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부가조사를 시행해왔다. 2007년부터 3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부가조사를 진행하였고, 2014년부터는 다시 8월에만 부가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형태 범위와 유형을 둘러싸고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정부 사이의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비정규직 고용형태 분류원칙을 정한 후, 2001년 8월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각 고용형태별 규모와 노동조건을 분석한 결과를 매년 통계자료집 형식으로 발간해 왔다. 본 보고서는 2020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것으로서 기존 보고서와 동일한 고용형태 분류원칙을 적용해 일관성을 유지했다.

분석 결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갖는 근본적 한계를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위장자영 노동자의 규모가 실제보다 매우 작게 추정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위장자영 노동자는 정부 용역보고서를 보더라도 115만명, 국가인권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2016)의 조사에 의하면 2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위장자영 노동자 수가 2020년 8월 기준 50만명 미만이며 규모와 비율 역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위장자영 노동자의 상당수가 임금노동자가 아닌 자영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¹⁾

둘째, 간접고용 노동자 규모도 과소 추정된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사내하청 여부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노동자의 상당수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정규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제조업과 대기업의 비정규직 규모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자체의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크다. 정확한 현실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비정규직 조사 방식이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1) 본 페이퍼에서는 '특수고용'을 '위장자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재택노동'과 '위장자영'을 합쳐서 '특수고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II.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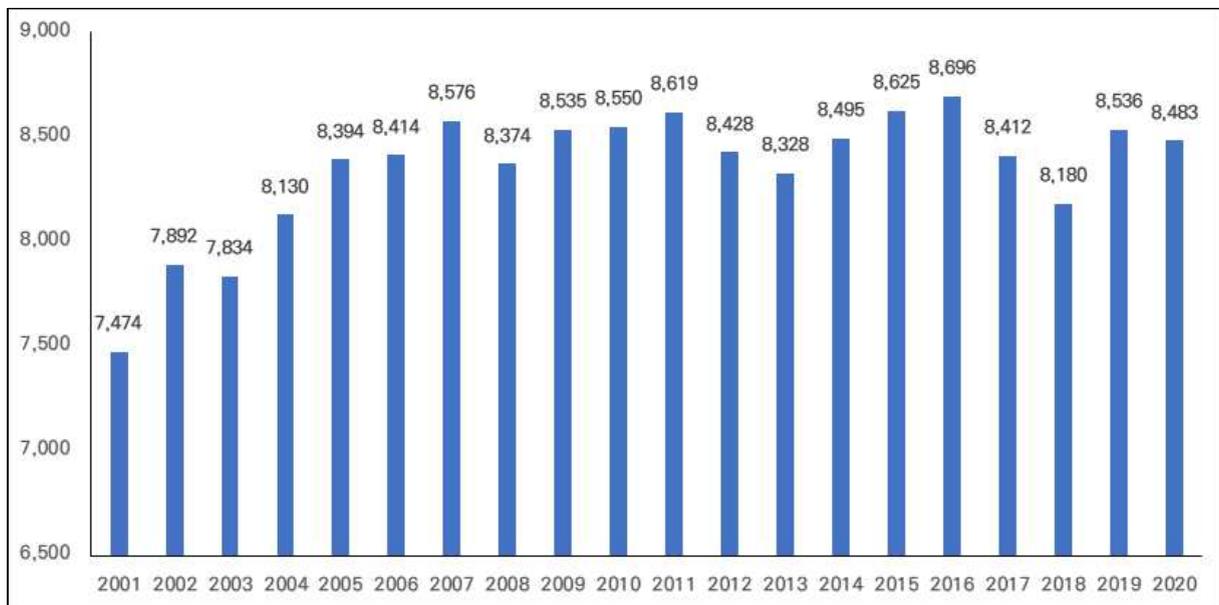
1. 전체 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2020년 8월 현재 약 848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5만 3천명(-0.6%) 줄어든 규모이다. 전체 임금노동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 3천명(-0.5%) 줄어들어 2,044만 6천명으로 감소했고, 정규직 노동자도 같은 기간 60만명(-0.5%) 줄어들어 1,196만 3천명으로 감소했다. 2001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꾸준히 증가해오던 임금노동자가 최초로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과 2018년 동안 감소했다가 2019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에는 비정규직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0년 3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5명 중 2명 이상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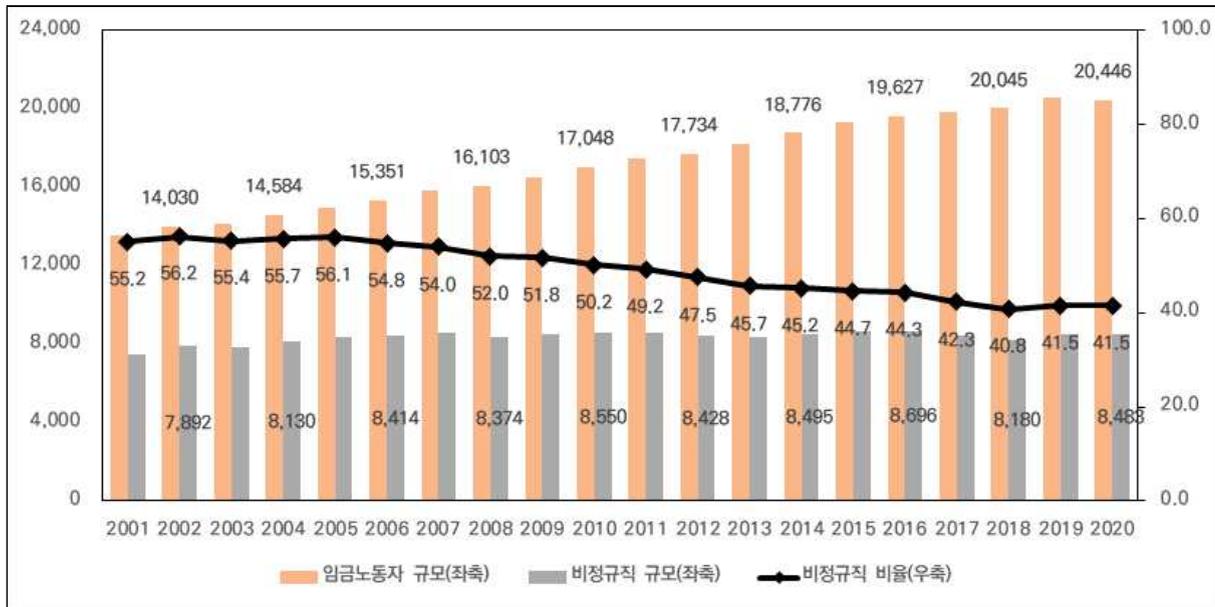
[그림 1] 비정규직 규모 추이

(단위: 천명)



[그림 2]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천명)



<표 1> 고용형태별 규모: 지난해와의 비교

(단위: 천명, %)

구분	고용형태	2019.08. (A)	2020.08. (B)	증감 (C=B-A)	증감률 (100*C/A)	
임금노동자 전체		20,559	20,446	-113	-0.5	
정규직 여부	정규직	12,023	11,963	-60	-0.5	
	비정규직	8,536	8,483	-53	-0.6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1,502	1,237	-265	-17.7
		기간제	2,509	2,635	125	5.0
	단시간	상용파트	300	315	15	5.1
		임시파트	2,180	2,224	44	2.0
	간접고용	호출노동	676	812	136	20.1
		용역노동	615	552	-63	-10.3
		파견노동	182	164	-18	-9.8
	특수고용	위장자영	526	496	-31	-5.8
		재택노동	46	49	3	7.3

〈표 2〉 고용형태별 비율: 지난해와의 비교

(단위: %, %p)

구분	고용형태		2019.08. (A)	2020.08. (B)	증감률 (C=B-A)
임금노동자 전체			100.0	100.0	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58.5	58.5	0.0
	비정규직		41.5	41.5	0.0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7.3	6.0	-1.3
		기간제	12.2	12.9	0.7
	단시간	상용파트	1.5	1.5	0.1
		임시파트	10.6	10.9	0.3
	간접고용	호출노동	3.3	4.0	0.7
		용역노동	3.0	2.7	-0.3
		파견노동	0.9	0.8	-0.1
	특수고용	위장자영	2.6	2.4	-0.1
		재택노동	0.2	0.2	0.0

2. 고용형태별 특징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직접고용/간접고용 여부, 상용직/임시직 여부, 전일제/시간제 여부, 특수고용 여부 등에 따라 4개의 중분류 형태와 9개의 소분류 형태로 구분한다. 분류원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비정규직 중분류 고용형태 중에서는 직접고용 전일제 임시직이 387만명(18.9%)으로 가장 많고, 직접고용 단시간이 254만명(12.4%)으로 두 번째로 많다(괄호 안은 임금노동자 대비 비중). 간접고용은 153만명(7.5%)이며, 특수고용은 54만명(2.7%)이다.

〈표 3〉

〈표 3〉 한국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구조 (2020년 8월)

임금노동자 20,445,894 11만 3,060명 (0.5%) 감소	특수고용 544,625 2만 7,209명 (4.8%) 감소	위장자영 495,565		
	종속적 노동자 19,901,269 8만 5,851명 (0.4%) 감소	간접고용 1,528,356 5만 4,989명 (3.7%) 증가	재택노동 49,060	
			파견노동 164,414	
			용역노동 551,984	
	직접고용 18,372,913 14만 841명 (0.8%) 감소	단시간 2,539,326 5만 9,407명 (2.4%) 증가	호출노동 811,958	
			상용파트 315,081	
임시파트 2,224,245				
		전일제 15,833,587 20만 248명 (1.2%) 감소	정규직 11,962,551	
			일반임시직 1,236,533	
			기간제 2,634,503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이루어진 2001년 이후 최초로 임금노동자 규모(11만 3천명, -0.5%)와 정규직 규모(6만명, -0.5%)가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단시간 규모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단시간 규모는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30만 4천명(14.0%)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만 9천명(2.4%)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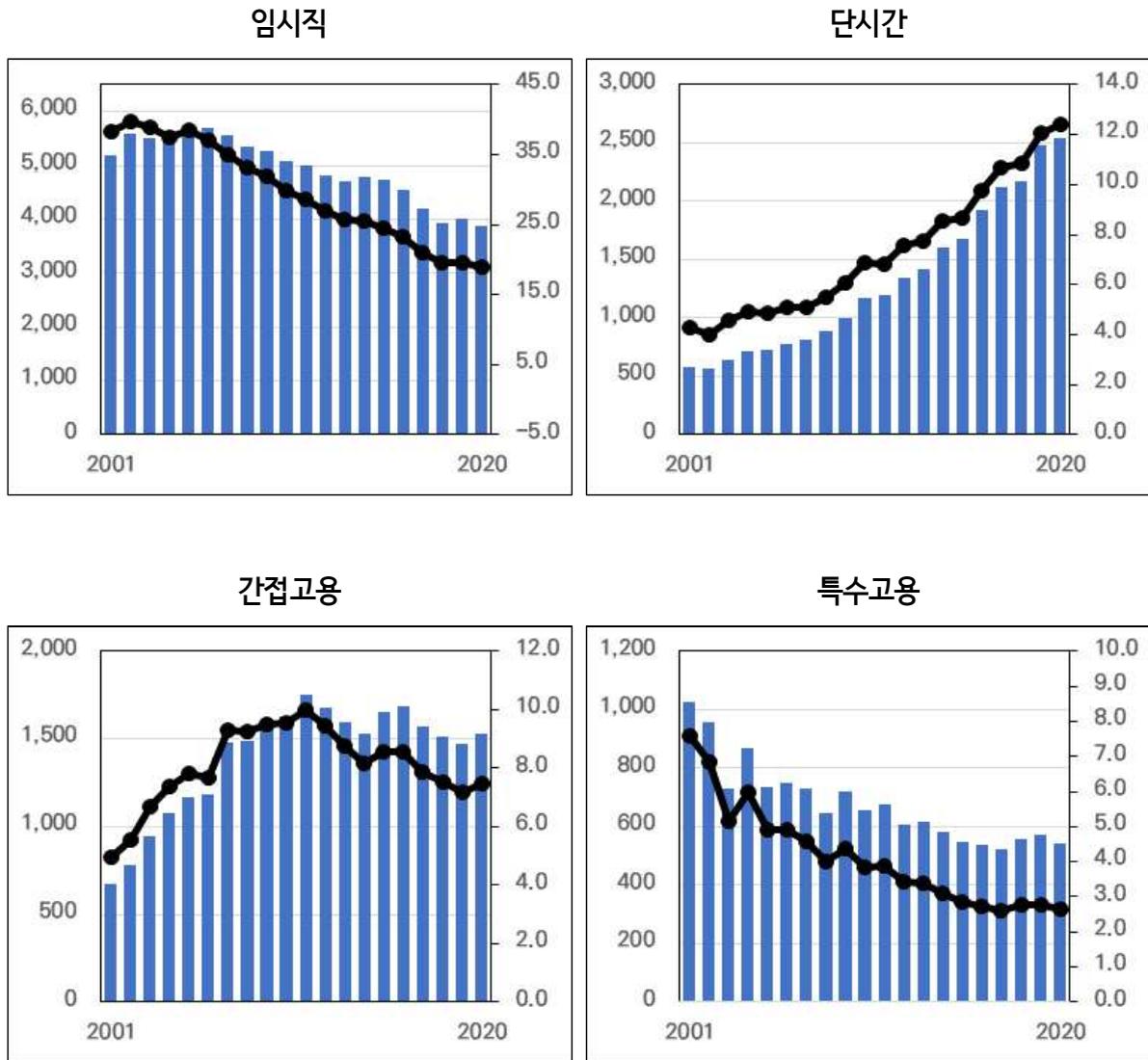
간접고용은 2017년을 기점으로 감소해오다가 2020년에는 전년 대비 5만 5천명(3.7%)이 증가하였다.

임시직은 2019년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는 다시 줄어들었다. 전년 대비 일반임시직은 26만 5천명(-17.7%) 감소했지만, 기간제가 12만 6천명(5.0%) 증가하면서 일반임시직 감소 폭이 기간제 상승 폭을 크게 웃돌아 임시직 규모는 14만명(-3.5%) 감소하였다.

특수고용은 2018년 증가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만명(-5.8%) 감소하였다.

[그림 3] 비정규직 중분류 형태별 규모와 비율 추이

(단위: 천명, %)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 중에서는 기간제, 임시파트타임, 일반임시직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기간제는 263만명(12.9%), 임시파트타임은 222만명(10.9%), 일반임시직은 124만명(6.0%)이다. 이들 고용형태의 노동자 수를 더하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71.8%에 달한다. 나머지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호출노동 81만명(4.0%), 용역노동 55만명(2.7%), 위장자영 50만명(2.4%), 상용파트타임 32만명(1.5%), 파견노동 16만명(0.8%), 재택노동 5만명(0.2%)이다.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별 전년 대비 규모 변화를 보면, 일반임시직은 26만 5천명 감소(-17.7%)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기간제는 12만 5천명(5.0%) 증가하여 2019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단시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주도하는 것은 임시파트타임으로 종사상 지위는 임시일용직, 취업 형태는 단시간인 고용형태를 말한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020년 8월 전년 동월 대비 4만 4천명(2.0%) 증가하였다.

상용파트타임은 임시파트타임 규모의 15% 수준이지만, 상용파트타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8월 전년 동월 대비 1만 5천명(5.0%) 증가하였다.

간접고용 중에서는 파견노동이 1만 7천명(-9.8%), 용역노동이 6만 3천명(-10.3%) 감소하였지만, 호출노동이 13만 6천명(20.1%) 증가하면서 전체 간접고용 규모를 증가하는 것을 주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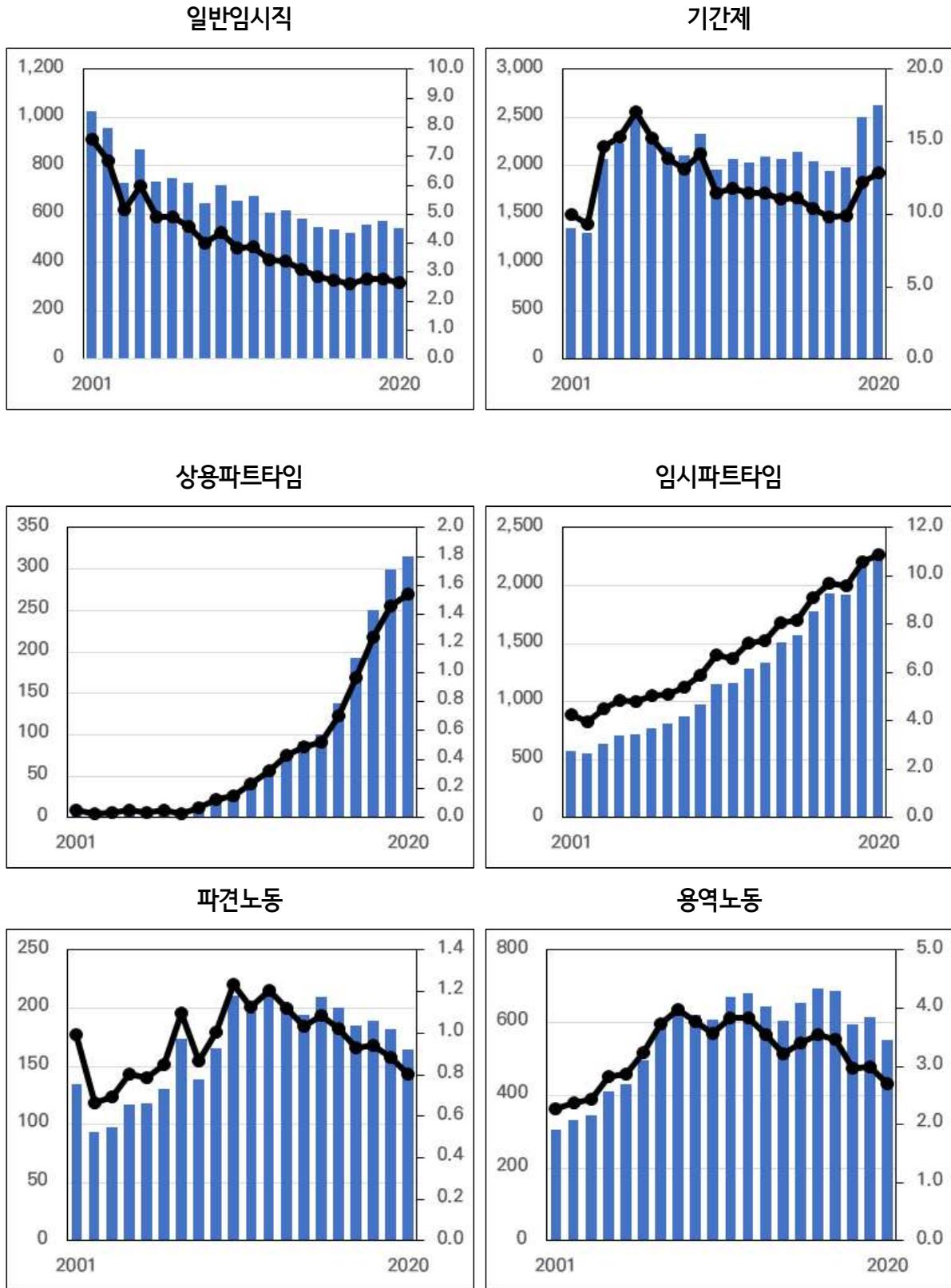
위장자영은 3만명(-5.8%) 감소하였고 재택노동은 3천명(7.3%) 증가하였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해오던 비정규직 규모는 2019년 다시 증가하여 2020년은 정체되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규모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 중에서 기간제, 상용파트타임, 임시파트타임, 호출노동, 재택노동은 증가했다. 특히, 상용파트타임과 임시파트타임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체 비정규직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단시간 일자리는 비정규직 내에서도 노동조건이 특히 더 열악한 고용형태라는 점에서 전반적 노동조건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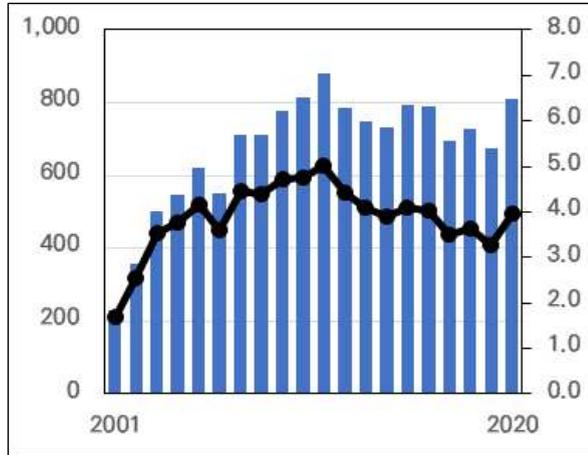
호출노동은 작년 동월 대비 13만 6천명(20.1%) 증가하여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다. 호출노동은 노동계약을 맺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일하는 고용 형태로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직하거나 무급휴직에 있는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유입되어 규모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4]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규모와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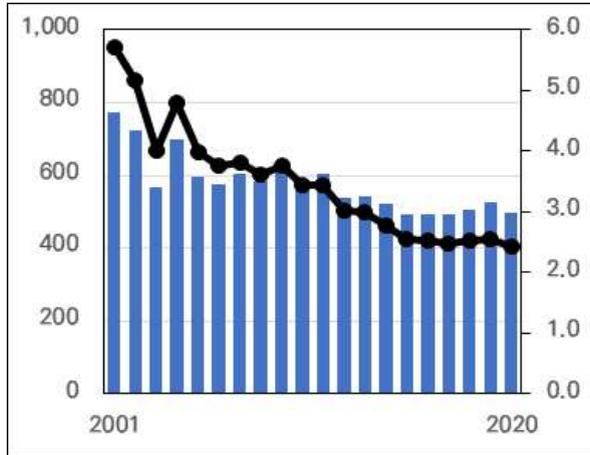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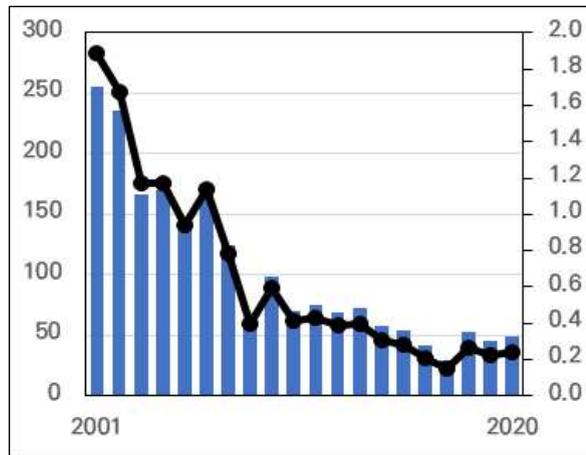
호출노동



위장자영



재택노동



<표 4> 연도별 고용형태별 규모

(단위: 천명)

조사년	임금노동자	정규직 여부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단시간		간접고용			특수고용	
		정규직	비정규직	일반임시	기간제	상용파트	임시파트	호출노동	용역노동	파견노동	위장자영	재택노동
2001	13,540	6,066	7,474	3,839	1,352	7	575	230	307	135	773	256
2002	14,030	6,138	7,892	4,279	1,309	3	558	356	332	94	724	235
2003	14,149	6,315	7,834	3,432	2,079	5	640	502	346	98	566	166
2004	14,584	6,455	8,130	3,231	2,235	7	709	548	413	117	700	171
2005	14,968	6,574	8,394	3,206	2,556	6	718	622	431	118	596	141
2006	15,351	6,937	8,414	3,358	2,342	8	773	553	498	131	576	175
2007	15,882	7,307	8,576	3,359	2,196	4	808	710	593	174	606	125
2008	16,103	7,730	8,374	3,240	2,113	11	872	710	641	139	583	64
2009	16,479	7,944	8,535	2,922	2,334	21	975	776	622	165	621	98
2010	17,048	8,497	8,550	3,126	1,960	26	1,149	813	608	211	587	70
2011	17,510	8,891	8,619	2,922	2,073	41	1,156	880	672	197	603	75
2012	17,734	9,306	8,428	2,765	2,037	58	1,282	784	682	214	537	69
2013	18,240	9,912	8,328	2,605	2,094	79	1,336	747	646	204	545	73
2014	18,776	10,282	8,495	2,703	2,076	91	1,513	733	604	194	523	58
2015	19,312	10,687	8,625	2,595	2,149	101	1,574	792	656	210	493	55
2016	19,627	10,931	8,696	2,509	2,046	138	1,783	788	696	201	494	42
2017	19,883	11,470	8,412	2,246	1,949	193	1,932	696	688	185	493	29
2018	20,045	11,865	8,180	1,943	1,992	250	1,925	728	596	189	505	53
2019	20,559	12,023	8,536	1,502	2,509	300	2,180	676	615	182	526	46
2020	20,446	11,963	8,483	1,237	2,635	315	2,224	812	552	164	496	49

<표 5> 연도별 고용형태별 비율

(단위: %)

조사년	임금노동자	정규직 여부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단시간		간접고용			특수고용	
		정규직	비정규직	일반임시	기간제	상용파트	임시파트	호출노동	용역노동	파견노동	위장자영	재택노동
2001	100.0	44.8	55.2	28.4	10.0	0.1	4.2	1.7	2.3	1.0	5.7	1.9
2002	100.0	43.8	56.2	30.5	9.3	0.0	4.0	2.5	2.4	0.7	5.2	1.7
2003	100.0	44.6	55.4	24.3	14.7	0.0	4.5	3.5	2.4	0.7	4.0	1.2
2004	100.0	44.3	55.7	22.2	15.3	0.0	4.9	3.8	2.8	0.8	4.8	1.2
2005	100.0	43.9	56.1	21.4	17.1	0.0	4.8	4.2	2.9	0.8	4.0	0.9
2006	100.0	45.2	54.8	21.9	15.3	0.1	5.0	3.6	3.2	0.9	3.8	1.1
2007	100.0	46.0	54.0	21.1	13.8	0.0	5.1	4.5	3.7	1.1	3.8	0.8
2008	100.0	48.0	52.0	20.1	13.1	0.1	5.4	4.4	4.0	0.9	3.6	0.4
2009	100.0	48.2	51.8	17.7	14.2	0.1	5.9	4.7	3.8	1.0	3.8	0.6
2010	100.0	49.8	50.2	18.3	11.5	0.2	6.7	4.8	3.6	1.2	3.4	0.4
2011	100.0	50.8	49.2	16.7	11.8	0.2	6.6	5.0	3.8	1.1	3.4	0.4
2012	100.0	52.5	47.5	15.6	11.5	0.3	7.2	4.4	3.8	1.2	3.0	0.4
2013	100.0	54.3	45.7	14.3	11.5	0.4	7.3	4.1	3.5	1.1	3.0	0.4
2014	100.0	54.8	45.2	14.4	11.1	0.5	8.1	3.9	3.2	1.0	2.8	0.3
2015	100.0	55.3	44.7	13.4	11.1	0.5	8.1	4.1	3.4	1.1	2.6	0.3
2016	100.0	55.7	44.3	12.8	10.4	0.7	9.1	4.0	3.5	1.0	2.5	0.2
2017	100.0	57.7	42.3	11.3	9.8	1.0	9.7	3.5	3.5	0.9	2.5	0.1
2018	100.0	59.2	40.8	9.7	9.9	1.2	9.6	3.6	3.0	0.9	2.5	0.3
2019	100.0	58.5	41.5	7.3	12.2	1.5	10.6	3.3	3.0	0.9	2.6	0.2
2020	100.0	58.5	41.5	6.0	12.9	1.5	10.9	4.0	2.7	0.8	2.4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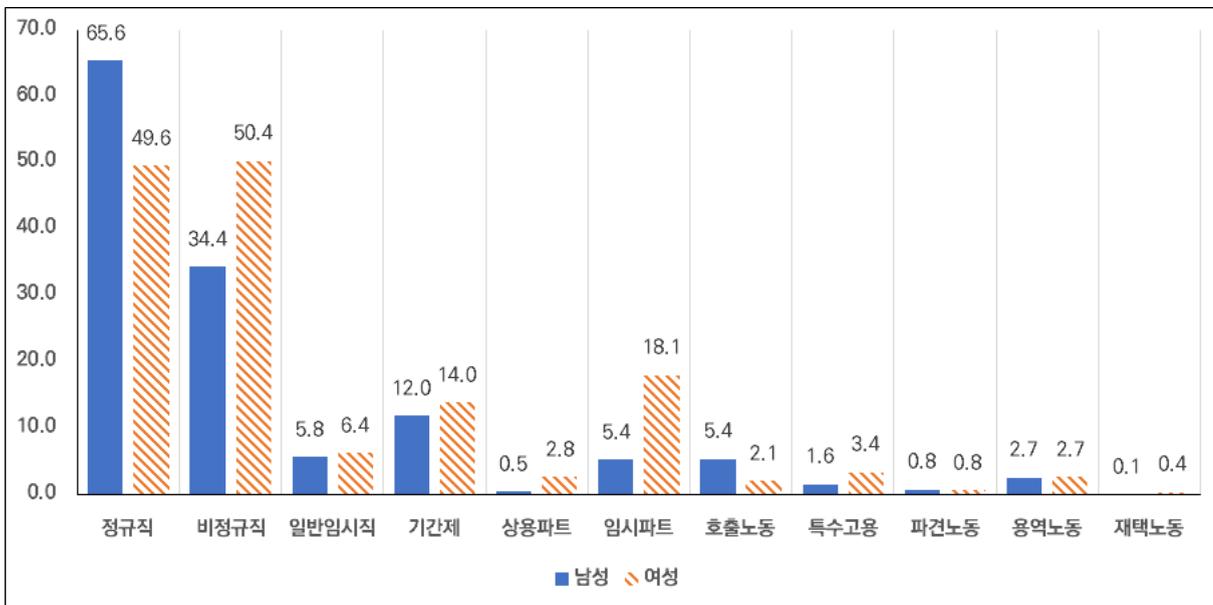
3. 성별 특징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 남성은 정규직 비율이 65.6%, 비정규직 비율이 34.4%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많다. 반면, 여성은 정규직 비율이 49.6%, 비정규직 비율이 50.4%로,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별로 보더라도 여성은 호출노동을 제외한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 비율이 남성보다 높거나 같다. 특히, 임시파트타임 비율을 보면, 남성은 5.4%이지만, 여성은 18.1%로 3.4배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림 5] 성별 고용형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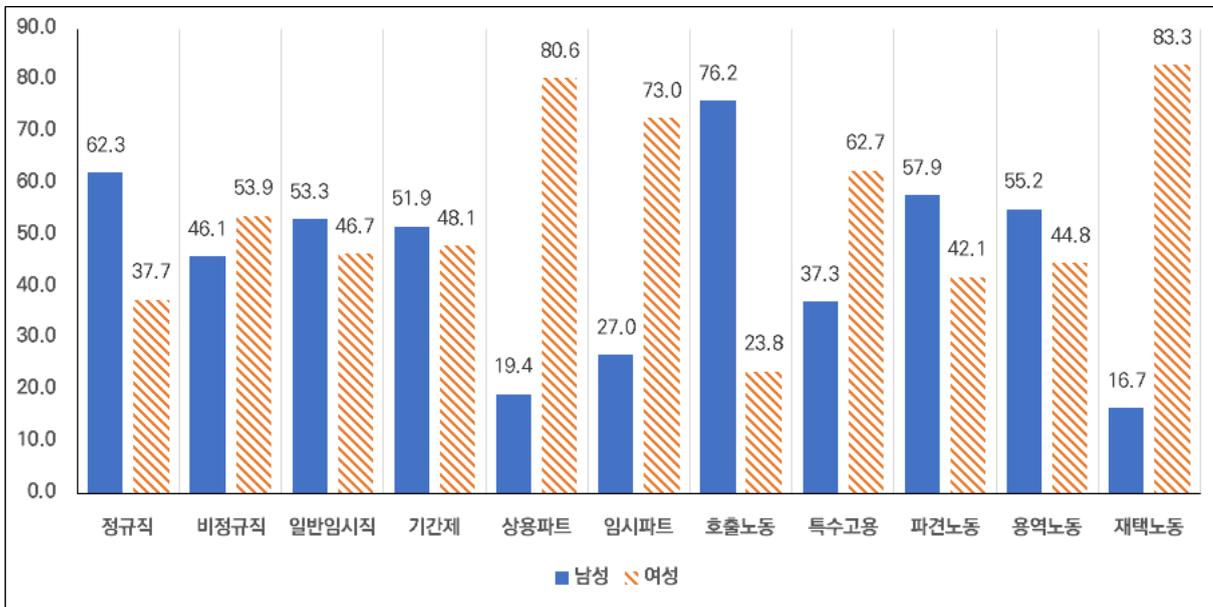
(단위: %)



각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의 성별 비율을 보면, 정규직은 62.3%가 남성이고 37.7%가 여성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남성이 46.1%, 여성이 53.9%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별로 보면, 호출노동의 경우 남성이 76.2%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반면, 상용파트타임, 임시파트타임, 위장자영, 재택노동에서 여성이 62.7%~83.3%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림 6] 고용형태별 성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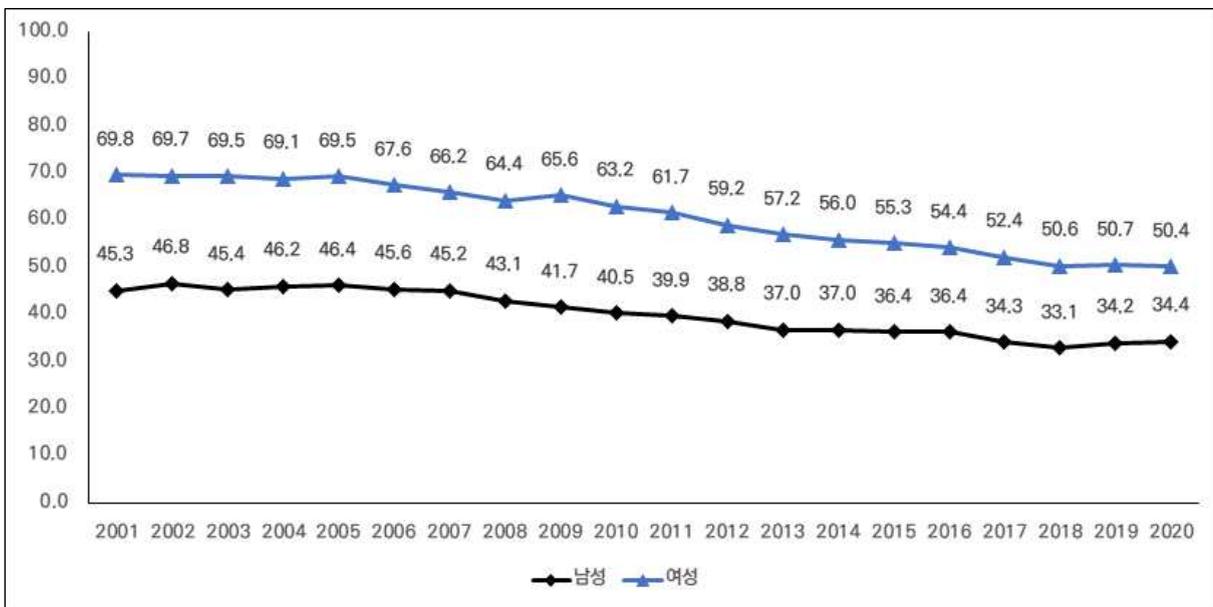
(단위: %)



지난해와 비교하면 남성 비정규직은 1만 2천명(0.3%) 증가했으며, 여성 비정규직은 6만 5천명(-1.4%) 감소하였다. 남성 내 비정규직 비율은 0.2%p 증가하였고, 여성 내 비정규직 비율은 0.3%p 감소하였다. 비정규직의 성별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2020년 8월 16.0%로 여전히 큰 폭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7] 성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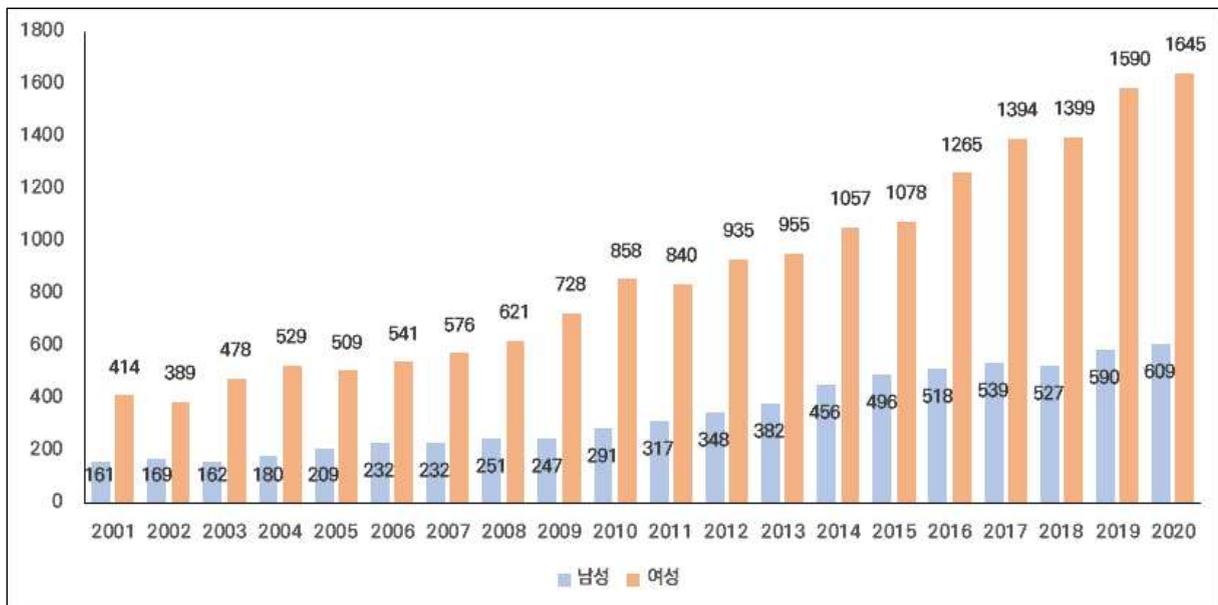


세부 고용형태별 변화를 보면 여성은 위장자영과 파견노동이 각각 3만 4천명(-9.7%), 2만 4천명(-25.6%) 감소했지만, 남성은 각각 3천명(1.6%), 6천명(6.7%) 증가하여 이러한 차이가 비정규직 규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은 기간제와 단시간에서 남성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여성 기간제 노동자는 전년 대비 10만 3천명(8.8%), 상용파트타임은 1만 4천명(5.9%), 임시파트타임은 5만 5천명(3.4%) 증가하였다. 반면, 남성 기간제 노동자는 2만 2천명(1.6%), 상용파트타임은 1천명(1.7%), 임시파트타임은 1만 9천명(3.3%) 증가했다. 이는 여성 비정규직 규모가 감소했지만, 비정규직 내에서 노동조건이 열악한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점이 노동조건 개선에 제약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림 8] 성별 임시파트타임 규모 추이

(단위: 천명)



일반임시직은 남성이 11만 6천명(-15.0%), 여성이 14만 9천명(-20.0%) 감소하였고 용역노동은 남성이 2만 7천명(-8.4%), 여성이 3만 5천명(-12.5%) 감소하였다.

반면, 호출노동은 남성이 10만명(20.5%), 여성이 3만명(19.0%) 증가하였고 재택노동은 남성이 285명(3.6%), 여성이 3천명(8.1%) 증가하였다.

<표 6> 성별 고용형태별 규모와 비율

(단위: 천명, %)

구분/고용형태			남성	여성	전체		
임금노동자		규모	11,361	9,085	20,446		
		성별 내%	100.0	100.0	100.0		
		고용형태 내%	55.6	44.4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규모	7,454	4,509	11,963	
			성별 내%	65.6	49.6	58.5	
			고용형태 내%	62.3	37.7	100.0	
		비정규직	규모	3,908	4,576	8,483	
			성별 내%	34.4	50.4	41.5	
			고용형태 내%	46.1	53.9	100.0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규모	660	577	1,237
				성별 내%	5.8	6.4	6.0
				고용형태 내%	53.3	46.7	100.0
		기간제	규모	1,366	1,268	2,635	
			성별 내%	12.0	14.0	12.9	
			고용형태 내%	51.9	48.1	100.0	
단시간		상용파트	규모	61	254	315	
			성별 내%	0.5	2.8	1.5	
			고용형태 내%	19.4	80.6	100.0	
		임시파트	규모	609	1,645	2,254	
			성별 내%	5.4	18.1	11.0	
			고용형태 내%	27.0	73.0	100.0	
간접고용		호출노동	규모	619	193	812	
			성별 내%	5.4	2.1	4.0	
			고용형태 내%	76.2	23.8	100.0	
		용역노동	규모	185	311	496	
			성별 내%	1.6	3.4	2.4	
			고용형태 내%	37.3	62.7	100.0	
파견노동		규모	95	69	164		
		성별 내%	0.8	0.8	0.8		
		고용형태 내%	57.9	42.1	100.0		
특수고용		위장자영	규모	305	247	552	
			성별 내%	2.7	2.7	2.7	
			고용형태 내%	55.2	44.8	100.0	
		재택노동	규모	8	41	49	
성별 내%	0.1		0.4	0.2			
			고용형태 내%	16.7	83.3	100.0	

4. 연령대별 특징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10대는 89.3%, 60대는 70.6%, 70세 이상은 93.0%로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20대와 50대는 각각 45.1%, 39.6%로 비정규직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 30대와 40대는 각각 27.0%, 30.5%이다. 이러한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다수가 30대 전후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생애 전반에 걸쳐 비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 비율도 연령대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각 연령대의 고용형태 비율을 전 연령 평균 고용형태 비율과 비교해 보면, 10대는 임시파트타임과 호출노동의 비율이, 20대는 일반임시직, 기간제, 임시파트타임의 비율이, 40대는 위장자영의 비율이, 50대는 일반임시직, 호출노동, 위장자영의 비율이, 70세 이상은 임시파트타임,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의 비율이 전 연령대 평균보다 높았다. 30대의 경우에는 모든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 비율에서 전 연령대 평균보다 높은 고용형태는 없었다. 반면, 60대의 경우에는 모든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 비율이 전 연령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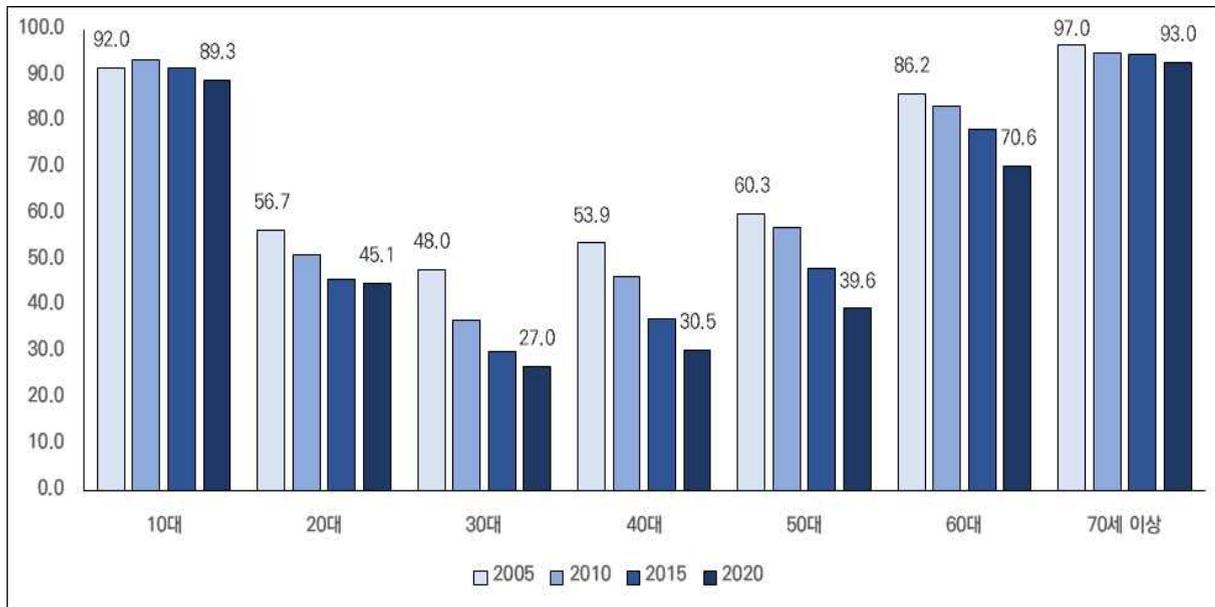
고용형태별 연령 분포를 보더라도, 일반임시직은 20대와 50대에 주로 분포해 있고, 기간제는 20대와 40~50대의 비율이 가장 높다. 단시간 중에서 상용파트타임은 40~60대에 주로 분포해 있지만, 임시파트타임은 20대와 60대~70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간접고용에 해당하는 파견노동, 용역노동, 호출노동은 50~60대에 주로 분포해 있다. 위장자영은 40~50대에, 재택노동은 50~60대에 주로 분포해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10~50대는 비정규직 규모가 모두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0대 2만명(-12.2%), 20대 4만 7천명(-3.0%), 30대 5만명(-4.0%), 40대 5만 2천명(-3.3%), 50대 7만 1천명(-3.8%) 감소하였다. 반면, 60대와 70세 이상은 각각 10만 7천명(7.6%), 8만명(11.2%) 증가했다.

정규직 규모도 10~40대까지 모두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0대 1만명(-35.8%), 20대 10만 9천명(-5.5%), 30대 15만 9천명(-4.7%), 40대 2만 7천명(-0.8%) 감소하였다. 반면, 50대~70세 이상은 각각 13만 7천명(5.3%), 9만 3천명(17.3%), 1만 6천명(35.8%)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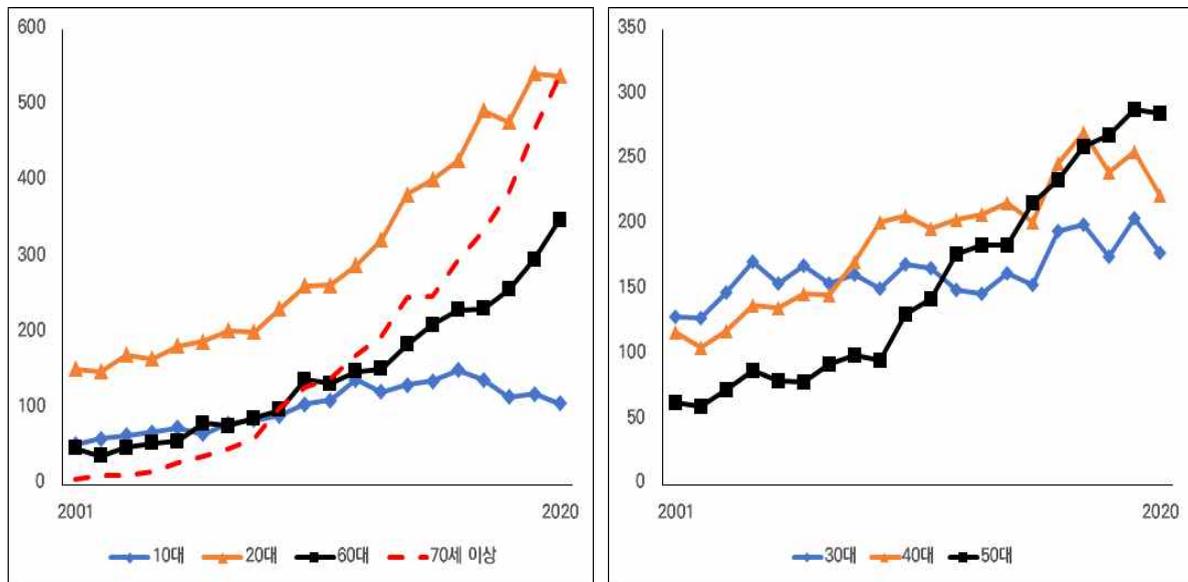
[그림 9]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그림 10] 연령대별 임시파트타임 규모 추이

(단위: 천명)



최근 임시파트타임의 급속한 증가는 20대와 60대~70세 이상이 주도하고 있다. 2019년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임시파트타임이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60대~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60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5만 2천명, 17.6%)했고, 70세 이상에서 7만명(15.0%)이 증가하였다.

<표 7> 연령대별 고용형태별 규모와 비율

(단위: 천명,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전체			
임금노동자		규모	164	3,399	4,481	4,900	4,501	2,143	859	20,446			
		연령대 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용형태 내%	0.8	16.6	21.9	24.0	22.0	10.5	4.2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규모	17	1,865	3,269	3,404	2,717	629	60	11,963		
			연령대 내%	10.7	54.9	73.0	69.5	60.4	29.4	7.0	58.5		
			고용형태 내%	0.1	15.6	27.3	28.5	22.7	5.3	0.5	100.0		
		비정규직	규모	146	1,534	1,212	1,495	1,784	1,513	799	8,483		
			연령대 내%	89.3	45.1	27.0	30.5	39.6	70.6	93.0	41.5		
			고용형태 내%	1.7	18.1	14.3	17.6	21.0	17.8	9.4	100.0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규모	8	287	229	231	285	162	34	1,237	
				연령대 내%	4.8	8.4	5.1	4.7	6.3	7.6	3.9	6.0	
				고용형태 내%	0.6	23.2	18.5	18.7	23.1	13.1	2.7	100.0	
		기간제	규모	17	524	495	565	523	434	76	76	2,635	
			연령대 내%	10.3	15.4	11.1	11.5	11.6	20.3	8.8	8.8		
			고용형태 내%	0.6	19.9	18.8	21.4	19.9	16.5	2.9	100.0		
		단시간		상용파트	규모	0	28	51	76	86	61	13	315
					연령대 내%	0.0	0.8	1.1	1.5	1.9	2.9	1.5	1.5
				임시파트	규모	108	540	179	223	286	350	539	2,224
					연령대 내%	65.9	15.9	4.0	4.6	6.3	16.3	62.8	10.9
		간접고용		호출노동	규모	12	55	88	143	293	189	31	812
					연령대 내%	7.3	1.6	2.0	2.9	6.5	8.8	3.7	4.0
고용형태 내%	1.5				6.8	10.8	17.6	36.1	23.3	3.9	100.0		
용역노동	규모			0	33	92	152	142	62	14	496		
	연령대 내%			0.0	1.0	2.1	3.1	3.2	2.9	1.6	2.4		
	고용형태 내%			0.0	6.7	18.6	30.7	28.7	12.6	2.8	100.0		
파견노동	규모			1	24	28	28	37	34	13	164		
	연령대 내%			0.5	0.7	0.6	0.6	0.8	1.6	1.5	0.8		
	고용형태 내%			0.5	14.5	17.3	17.1	22.4	20.6	7.7	100.0		
특수고용		위장자영	규모	1	36	43	69	120	209	73	552		
			연령대 내%	0.4	1.1	1.0	1.4	2.7	9.8	8.5	2.7		
		고용형태 내%	0.1	6.6	7.8	12.6	21.8	37.9	13.2	100.0			
재택노동	규모	0	7	7	7	10	11	6	49				
	연령대 내%	0.0	0.2	0.2	0.2	0.2	0.5	0.7	0.2				
	고용형태 내%	0.0	13.7	14.2	15.1	21.2	23.1	12.6	100.0				

5. 학력별 특징

비정규직 비율은 학력에 반비례한다.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비정규직 비율이 낮아진다. 학력별 임금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초졸이하는 85.9%, 중졸은 74.2%, 고졸까지도 51.7%로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그러나 초대졸 학력자부터는 정규직 비율이 60.1%로 비정규직 비율 30.9%를 상회하기 시작하며, 대졸은 75.6%, 대학원으로 높아지면 77.6%까지 정규직 비율이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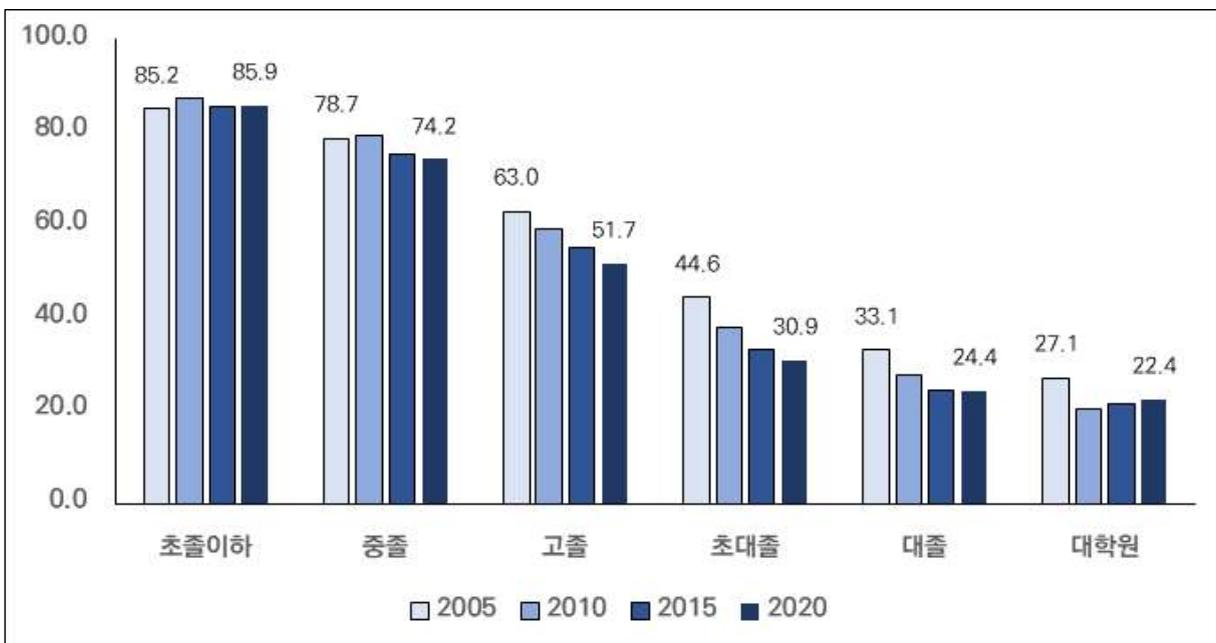
학력별 비정규직 내에서 세부 고용형태 분포를 살펴보면, 초졸이하는 일반임시직, 임시파트타임, 호출노동,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졸은 위장자영과 재택노동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비율이 높으며, 고졸은 상용파트타임과 재택노동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비율이 높다.

고학력 집단의 비정규직 분포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초대졸은 기간제와 위장자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졸은 상용파트타임의 비율, 대학원은 기간제의 비율만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임시직, 임시파트타임, 파견노동, 용역노동, 호출노동 비율은 저학력 집단에서, 상용파트타임 비율은 고학력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 집단의 비정규직 비율은 많이 감소하였으나 고졸 이하의 저학력 집단에서의 비정규직 비율은 매우 느린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표 8> 학력별 고용형태별 규모와 비율

(단위: 천명, %)

			초졸이하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	전체			
임금노동자		규모	1,092	1,246	7,426	2,980	6,651	1,051	20,446			
		학력 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용형태 내%	5.3	6.1	36.3	14.6	32.5	5.1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규모	154	321	3,588	2,058	5,026	816	11,963		
			학력 내%	14.1	25.8	48.3	69.1	75.6	77.6	58.5		
			고용형태 내%	1.3	2.7	30.0	17.2	42.0	6.8	100.0		
		비정규직	규모	937	925	3,838	922	1,625	235	8,483		
			학력 내%	85.9	74.2	51.7	30.9	24.4	22.4	41.5		
			고용형태 내%	11.1	10.9	45.2	10.9	19.2	2.8	100.0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규모	81	130	660	139	214	13	1,237	
				학력 내%	7.4	10.5	8.9	4.7	3.2	1.2	6.0	
				고용형태 내%	6.6	10.5	53.3	11.2	17.3	1.0	100.0	
		기간제	규모	139	196	1,050	387	718	145	2,635		
			학력 내%	12.7	15.7	14.1	13.0	10.8	13.8	12.9		
			고용형태 내%	5.3	7.4	39.9	14.7	27.2	5.5	100.0		
		단시간		상용파트	규모	16	22	105	44	113	15	315
					학력 내%	1.5	1.7	1.4	1.5	1.7	1.4	1.5
				고용형태 내%	5.2	6.8	33.4	14.0	36.0	4.6	100.0	
				임시파트	규모	461	245	1,004	162	313	39	2,224
		학력 내%	42.3		19.7	13.5	5.4	4.7	3.7	10.9		
		고용형태 내%	20.7	11.0	45.1	7.3	14.1	1.8	100.0			
		간접고용		호출노동	규모	112	182	427	38	50	3	812
					학력 내%	10.3	14.6	5.8	1.3	0.8	0.3	4.0
					고용형태 내%	13.8	22.4	52.6	4.6	6.2	0.3	100.0
				용역노동	규모	14	28	245	76	120	13	496
					학력 내%	1.3	2.2	3.3	2.5	1.8	1.2	2.4
					고용형태 내%	2.8	5.6	49.4	15.3	24.3	2.6	100.0
파견노동	규모	12	17	73	25	36	2	164				
	학력 내%	1.1	1.3	1.0	0.8	0.5	0.2	0.8				
	고용형태 내%	7.1	10.0	44.4	15.3	21.7	1.5	100.0				
특수고용		위장자영	규모	91	103	258	45	50	6	552		
			학력 내%	8.3	8.3	3.5	1.5	0.7	0.5	2.7		
			고용형태 내%	16.5	18.7	46.7	8.2	9.0	1.0	100.0		
		재택노동	규모	11	3	16	7	12	1	49		
학력 내%	1.0		0.2	0.2	0.2	0.2	0.1	0.2				
고용형태 내%	21.7	6.1	33.1	13.8	23.7	1.6	100.0					

6. 산업별 특징

산업 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넘는 산업은 농림어업(80.2%), 건설업(59.7%), 숙박음식점업(72.2%), 부동산임대업(56.1%), 시설관리업(66.5%), 예술스포츠여가업(65.7%), 가구내고용(98.9%) 등이다. 서비스업에서 임금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도 비정규직 비율이 42.4%이다. 또한, 보건사회서비스업(44.3%)과 교육서비스업(43.3%) 역시 비정규직 비율이 40%를 상회한다.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제조업(19.0%), 출판영상방송업(17.3%), 전문과학서비스업(19.5%)은 비정규직 비율이 20% 미만이다. 공공행정국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중심 공공 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2018년 29.0%, 2019년 34.6%, 2020년 36.4%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별 비정규직의 세부 고용형태별 분포를 전 산업 평균과 비교해 보면, 제조업은 재택노동을 제외한 고용형태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도소매업은 일반임시직과 단시간(상용파트타임, 임시파트타임), 위장자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숙박음식점은 일반임시직과 임시파트타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융보험업의 경우에는 위장자영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동산업은 기간제의 비율이 높았으며, 시설관리업은 용역노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건설업은 호출노동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공공행정국방은 임시파트타임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사회서비스업에서는 기간제, 상용파트타임, 임시파트타임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고용형태별 비정규직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일반임시직은 숙박음식점업(21.3%), 도소매업(18%), 제조업(14.3%), 건설업(12.0%)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들 네 산업의 비율을 합하면 5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은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일반임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

기간제는 보건사회서비스업(18.0%)과 제조업(14.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교육서비스업(8.9%), 건설업(8.9%), 도소매업(8.8%)의 비중도 높다. 특히, 이 중에서 보건사회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은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기간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

상용파트타임은 보건사회서비스업(23.1%), 도소매업(17.9%), 교육서비스업(12.4%),

제조업(10.0%) 등 네 산업의 비중을 합하면 6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보건사회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상용파트타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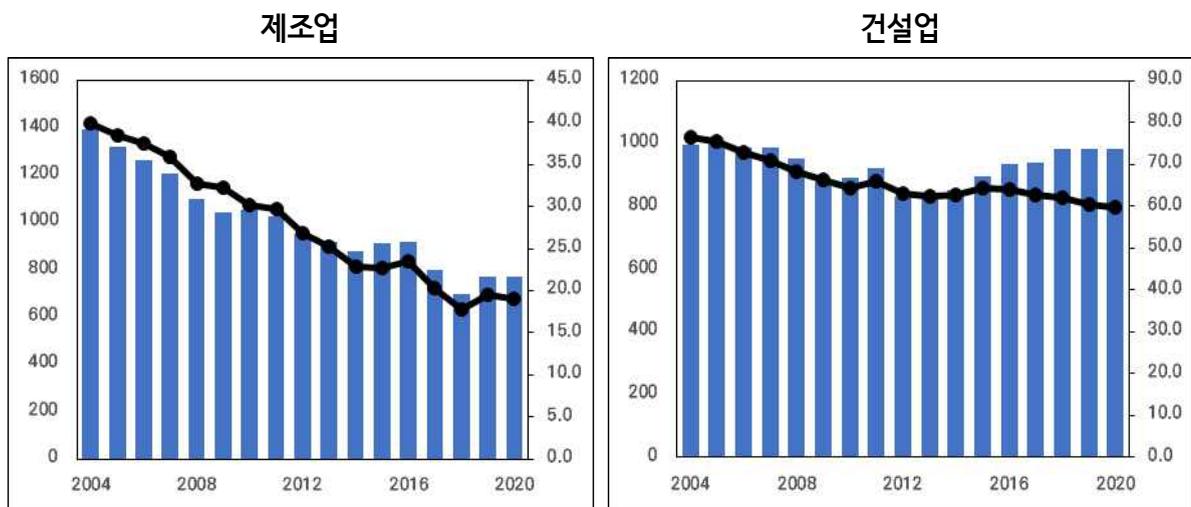
임시파트타임은 보건사회서비스업(23.3%), 숙박음식점업(19.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외에도 공공행정국방(13.1%), 도소매업(11.8%), 교육서비스업(11.2%) 등 5개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임시파트타임의 78.6%를 차지한다. 또한, 5개 산업 모두에서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상용파트타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출노동, 위장자영, 파견노동, 용역노동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호출노동은 건설업(65.1%)이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위장자영은 금융보험업(40.8%)이 다수를 차지하고, 파견노동과 용역노동은 시설관리업이 각각 53.7%와 89.3%로 절반 이상의 비율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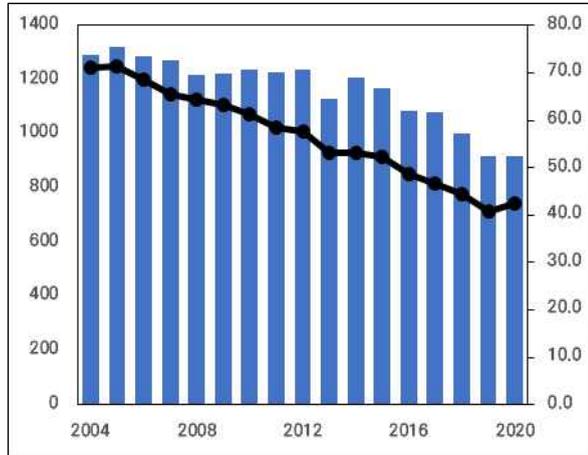
산업별 비정규직 추이를 보면, 증가한 산업과 감소한 산업의 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증가한 산업의 경우에는 특정 산업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감소한 산업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하였다.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한 산업은 보건사회서비스업이 16만 4천명(17.1%) 증가하였으며, 공공행정국방이 4만명(10.6%), 출판영상방송업이 2만 1천명(18.7%) 증가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 13만명(-12.1%), 교육서비스업 5만 1천명(-7.4%), 시설관리업 3만명(-3.4%), 금융보험업 3만명(-10.0%), 부동산임대업 2만 5천명(-10.9%), 예술스포츠업 2만 1천명(-8.9%)이 감소했다.

[그림 12]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추이 (200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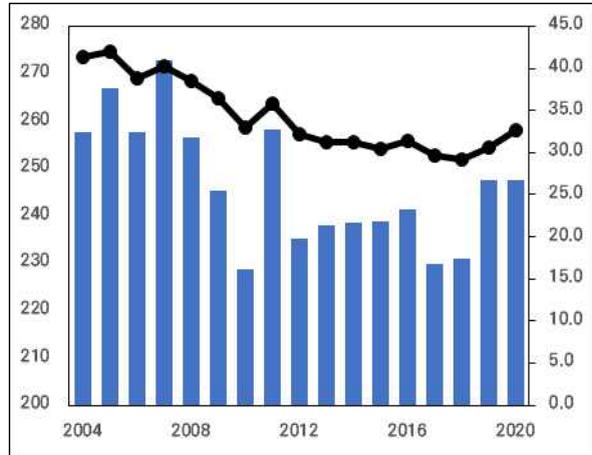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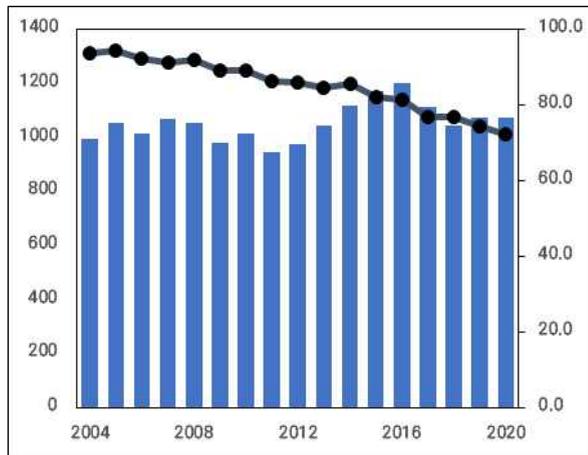
도소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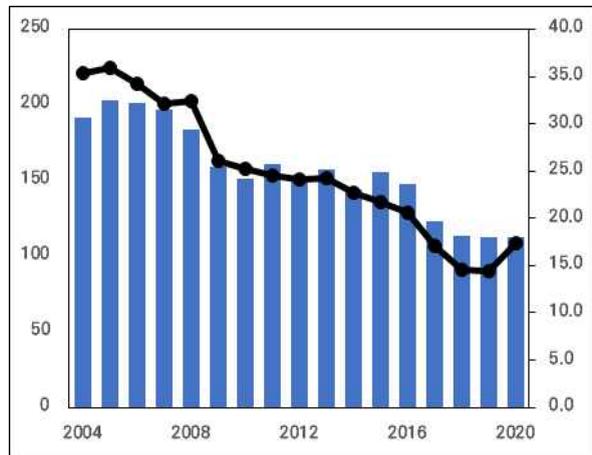
운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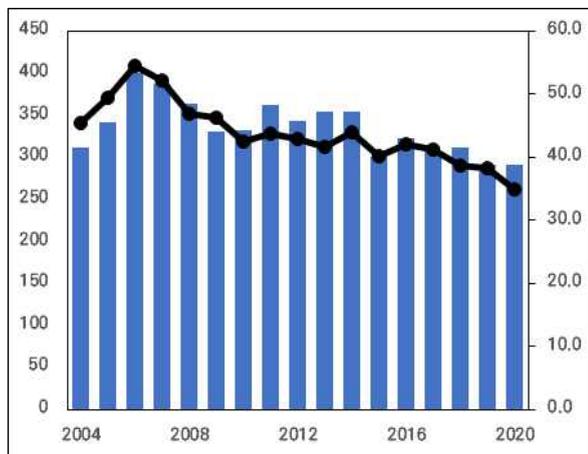
숙박음식점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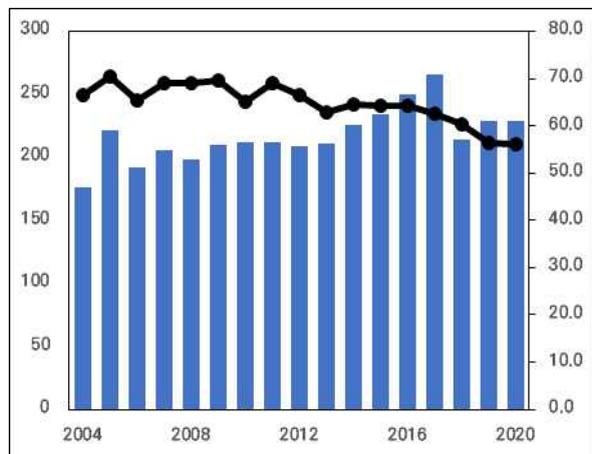
출판영상방송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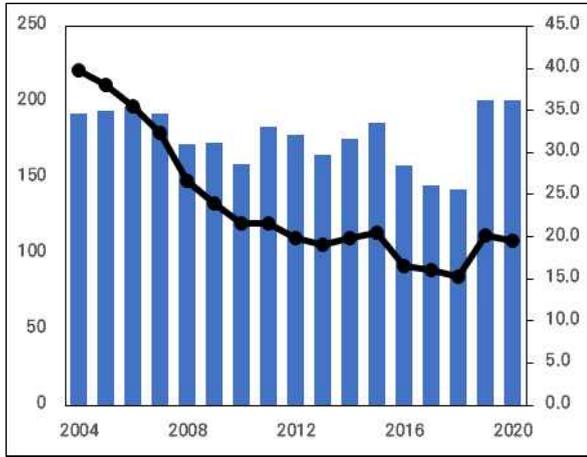
금융보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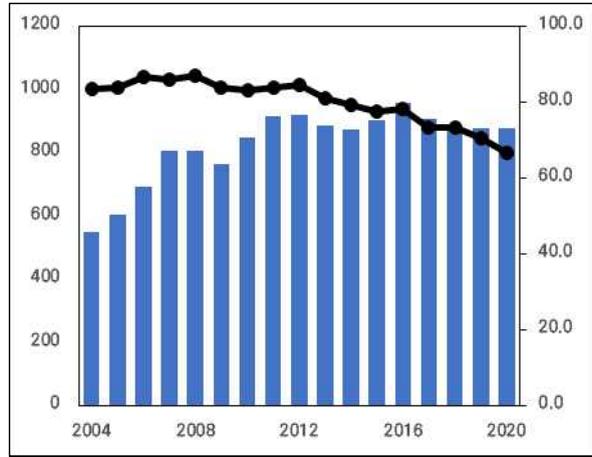
부동산임대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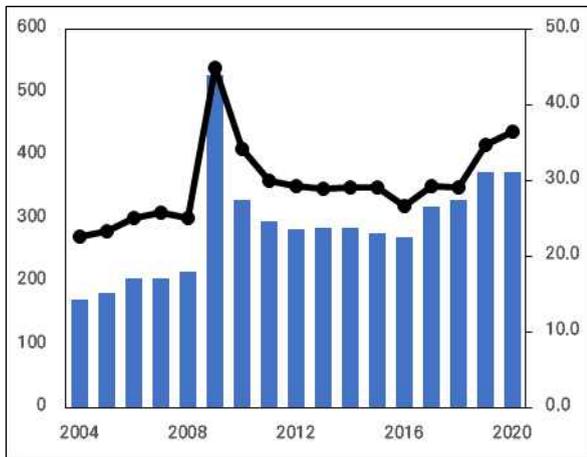
전문과학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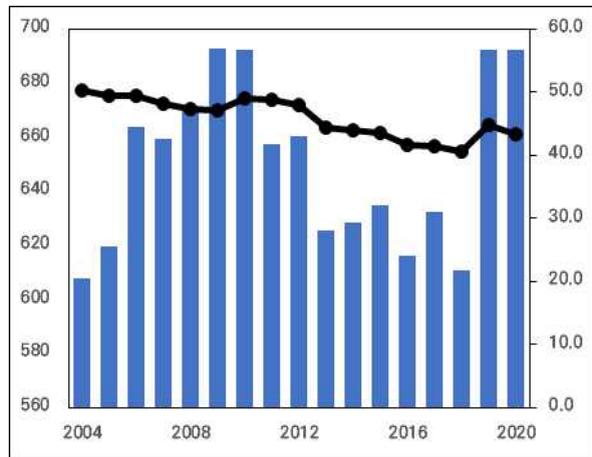
시설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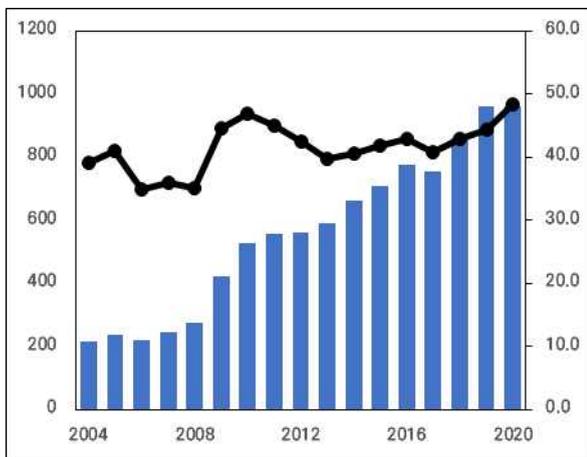
공공행정국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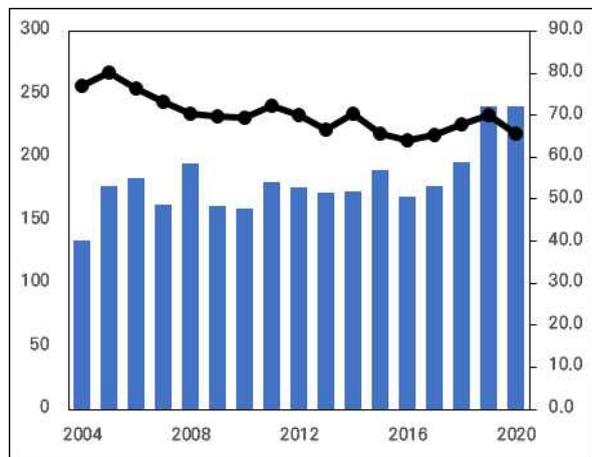
교육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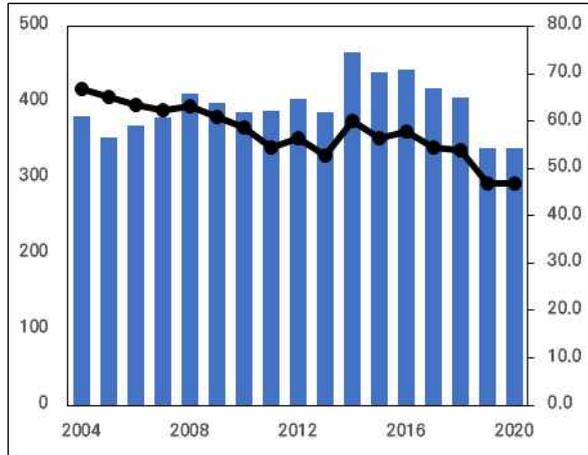
보건사회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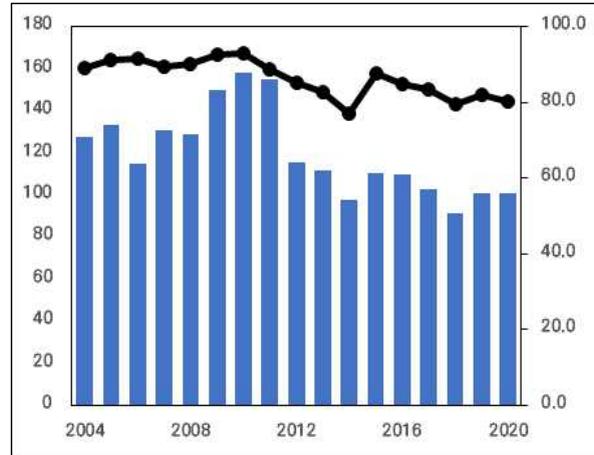
예술서비스여가업



협회단체서비스업



농림어업



<표 9> 산업별 고용형태별 규모와 비율 (A~U 산업분류코드 부록 참조)

(단위: 천명, %)

			A	B	C	D	E	F	G	H	I	J	K			
임금노동자		규모	120	11	3,930	71	142	1,662	2,172	813	1,306	771	749			
		학력 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용형태 내%	0.6	0.1	19.2	0.3	0.7	8.1	10.6	4.0	6.4	3.8	3.7			
정규직 여부		정규직	규모	24	8	3,184	56	104	669	1,251	547	362	637	487		
			학력 내%	19.8	70.4	81.0	77.8	73.3	40.3	57.6	67.3	27.8	82.7	65.1		
			고용형태 내%	0.2	0.1	26.6	0.5	0.9	5.6	10.5	4.6	3.0	5.3	4.1		
		비정규직	규모	96	3	746	16	38	993	921	266	943	134	262		
			학력 내%	80.2	29.6	19.0	22.2	26.7	59.7	42.4	32.7	72.2	17.3	34.9		
			고용형태 내%	1.1	0.0	8.8	0.2	0.4	11.7	10.9	3.1	11.1	1.6	3.1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규모	24	0	177	1	3	149	222	43	264	14	8	
				학력 내%	19.6	0.0	4.5	2.0	2.2	9.0	10.2	5.3	20.2	1.8	1.0	
				고용형태 내%	1.9	0.0	14.3	0.1	0.3	12.0	18.0	3.5	21.3	1.1	0.6	
			기간제	규모	29	2	393	10	27	235	232	127	140	82	34	
				학력 내%	24.4	22.0	10.0	13.9	19.0	14.1	10.7	15.6	10.7	10.7	4.5	
				고용형태 내%	1.1	0.1	14.9	0.4	1.0	8.9	8.8	4.8	5.3	3.1	1.3	
		단시간	상용파트	규모	2	0	32	1	2	23	56	6	25	3	1	
				학력 내%	1.7	0.0	0.8	1.8	1.2	1.4	2.6	0.7	1.9	0.4	0.1	
			임시파트	규모	5	0	81	0	2	28	262	34	427	23	13	
				학력 내%	4.4	0.0	2.1	0.0	1.6	1.7	12.1	4.2	32.7	3.0	1.7	
		간접고용		호출노동	규모	33	1	36	0	2	528	31	17	73	0	2
					학력 내%	27.8	7.6	0.9	0.0	1.2	31.8	1.4	2.1	5.6	0.0	0.3
					고용형태 내%	4.1	0.1	4.4	0.0	0.2	65.1	3.9	2.1	9.0	0.0	0.3
				용역노동	규모	0	0	4	0	1	17	2	1	4	2	0
					학력 내%	0.0	0.0	0.1	0.0	0.5	1.0	0.1	0.1	0.3	0.2	0.0
					고용형태 내%	0.0	0.0	0.7	0.0	0.1	3.0	0.3	0.2	0.7	0.3	0.0
				파견노동	규모	0	0	3	0	0	13	16	2	6	5	1
					학력 내%	0.0	0.0	0.1	0.0	0.1	0.8	0.7	0.2	0.4	0.6	0.1
고용형태 내%	0.0				0.0	1.8	0.0	0.1	8.0	9.8	1.0	3.4	3.0	0.4		
특수고용		위장자영	규모	2	0	6	2	0	96	37	4	3	202			
			학력 내%	1.4	0.0	0.2	2.5	0.0	0.0	4.4	4.5	0.3	0.4	27.0		
		재택노동	규모	1	0	15	1	1	0	2	0	2	2	1		
			학력 내%	1.0	0.0	0.4	2.0	0.9	0.0	0.1	0.0	0.1	0.3	0.1		
		고용형태 내%	2.4	0.0	30.7	3.0	2.6	0.0	4.5	0.0	3.7	4.9	1.9			

<표 9-이어서> 산업별 고용형태별 규모와 비율 (A~U 산업분류코드 부록 참조)

(단위: 천명, %)

			L	M	N	O	P	Q	R	S	T	U	전체				
임금노동자		규모	363	986	1,274	1,134	1,482	2,328	334	677	103	19	20,446				
		학력 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용형태 내%	1.8	4.8	6.2	5.5	7.3	11.4	1.6	3.3	0.5	0.1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규모	159	793	427	721	841	1,201	115	359	1	15	11,963			
			학력 내%	43.9	80.5	33.5	63.6	56.7	51.6	34.3	53.1	1.1	80.6	58.5			
			고용형태 내%	1.3	6.6	3.6	6.0	7.0	10.0	1.0	3.0	0.0	0.1	100.0			
		비정규직	규모	204	193	847	413	641	1,127	219	317	101	4	8,483			
			학력 내%	56.1	19.5	66.5	36.4	43.3	48.4	65.7	46.9	98.9	19.4	41.5			
			고용형태 내%	2.4	2.3	10.0	4.9	7.6	13.3	2.6	3.7	1.2	0.0	100.0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규모	30	23	30	2	61	29	45	84	26	1	1,237		
				학력 내%	8.3	2.3	2.4	0.2	4.1	1.3	13.4	12.5	25.8	5.1	6.0		
				고용형태 내%	2.4	1.8	2.5	0.2	4.9	2.4	3.6	6.8	2.1	0.1	100.0		
			기간제	규모	96	122	140	114	234	475	67	65	9	1	2,635		
				학력 내%	26.4	12.4	11.0	10.0	15.8	20.4	20.1	9.6	9.1	6.0	12.9		
				고용형태 내%	3.6	4.6	5.3	4.3	8.9	18.0	2.5	2.5	0.4	0.0	100.0		
		단시간	상용파트	규모	13	9	9	3	39	73	7	11	0	0	315		
				학력 내%	3.7	1.0	0.7	0.3	2.6	3.1	2.0	1.6	0.0	0.0	1.5		
			임시파트	규모	19	26	35	291	250	518	80	80	49	2	2,224		
				학력 내%	5.3	2.7	2.8	25.6	16.8	22.3	23.9	11.8	47.9	8.3	10.9		
		간접고용		호출노동	규모	4	4	27	2	2	5	6	31	8	0	812	
					학력 내%	1.1	0.4	2.1	0.2	0.1	0.2	1.7	4.6	7.9	0.0	4.0	
					고용형태 내%	0.5	0.5	3.3	0.3	0.2	0.6	0.7	3.8	1.0	0.0	100.0	
				용역노동	규모	22	2	493	0	3	2	0	0	0	0	0	552
					학력 내%	6.1	0.2	38.7	0.0	0.2	0.1	0.0	0.1	0.0	0.0	0.0	2.7
					고용형태 내%	4.0	0.4	89.3	0.0	0.6	0.4	0.0	0.1	0.0	0.0	0.0	100.0
				파견노동	규모	8	2	88	0	0	15	1	5	0	0	0	164
					학력 내%	2.3	0.2	6.9	0.0	0.0	0.7	0.3	0.7	0.0	0.0	0.0	0.8
고용형태 내%	5.0				1.2	53.7	0.0	0.0	9.4	0.5	2.8	0.0	0.0	0.0	100.0		
특수고용		위장자영	규모	11	3	23	0	50	4	13	41	0	0	496			
			학력 내%	3.0	0.3	1.8	0.0	3.4	0.2	3.9	6.0	0.0	0.0	2.4			
		재택노동	규모	0	1	2	2	3	6	1	0	9	0	49			
			학력 내%	0.0	0.1	0.1	0.1	0.2	0.3	0.4	0.1	8.3	0.0	0.2			
		고용형태 내%	0.0	1.1	3.6	3.1	6.1	11.9	2.5	0.7	17.4	0.0	100.0				

7. 직업별 특성

직업 내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단순노무 종사자로 비정규직 비율이 79.3%에 달한다. 이외에도 농림어업숙련 종사자(72.8%), 서비스직 종사자(64.8%), 판매직 종사자(57.8%)도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 반면, 관리자와 사무직 종사자는 정규직 비율이 각각 85.4%, 80.7%로 매우 높다. 전문가와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도 정규직 비율이 각각 74.5%, 76.4%로 비정규직 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

비정규직 내 직업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32.7%로 가장 많고, 서비스직 종사자가 15.5%로 두 번째로 많다. 이외에도 전문가 13.8%, 판매직 종사자 11.1%, 사무직 종사자 10.1%, 기능 및 관련직 종사자 9.8%, 장치기계조작조립직 종사자 5.8%, 농림어업숙련직 종사자와 관리자가 각각 0.6%씩이다.

비정규직 세부 형태별 직업 분포를 보면, 임시직에 해당하는 일반임시직은 주로 단순노무 종사자(25.6%)와 서비스직 종사자(19.2%), 기능 및 관련직 종사자(13.4%), 판매직 종사자(13.1%)로 구성되어 있다. 기간제는 전문가(24.0%), 단순노무 종사자(21.0%), 사무직 종사자(15.0%), 서비스직 종사자(12.3%)로 일반임시직과 상이한 분포를 보인다.

단시간에 해당하는 상용파트타임은 사무직 종사자(29.3%)와 서비스직 종사자(22.0%)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으며, 전문가(17.8%)와 단순노무 종사자(16.0%)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임시파트타임은 단순노무 종사자(41.8%)와 서비스직 종사자(24.1%)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판매직 종사자(11.6%)와 전문가(11.1%)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파견노동은 단순노무 종사자(35.1%), 판매직 종사자(14.6%), 사무직 종사자(13.0%)가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용역노동은 단순노무 종사자(69.1%)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호출노동은 단순노무 종사자(49.7%)와 기능 및 관련직 종사자(37.3%)로 전체의 87.0%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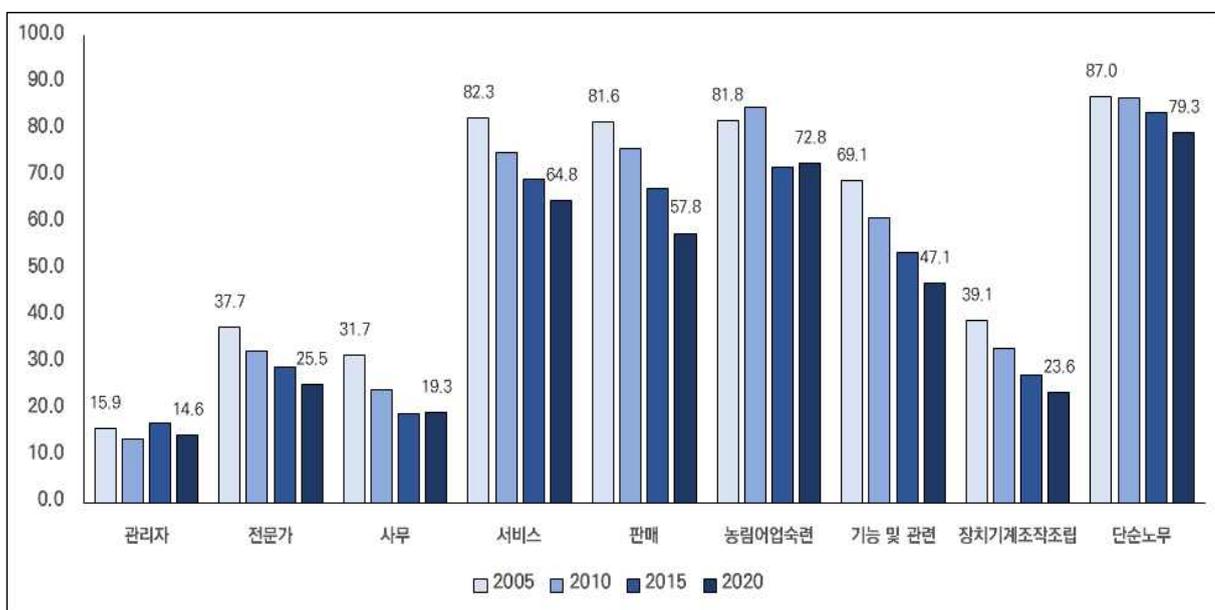
위장자영은 판매직 종사자(59.6%)가 절반 이상의 분포를 보였으며, 재택노동은 단순노무 종사자(34.7%)와 사무직 종사자(18.0%)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하였을 때, 전문가, 사무직, 농림어업숙련직, 장치기계조작조립직 종사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3.5%p, 0.7%p, 8.3%p, 0.1%p씩 증가하였다. 반면, 전문가,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 및 관련직,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각각 -1.3%p, -1.5%p, -1.5%p, -0.2%p, -0.9%p씩 감소하였다.

전체적인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지만,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장치기계조작조립직 종사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30% 미만의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에서 감소하고 있다. 반면, 구조적으로 높은 직업 중에서 서비스직, 판매직, 기능 및 관련직 종사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반에 가깝거나 그 이상의 비율이다. 특히,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경우 여전히 79.3%라는 높은 비정규직 분포를 보였다.

[그림 13] 직업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2005~2020)

(단위: %)



<표 10> 직업별 고용형태별 규모와 비율

(단위: 천명, %)

			관리자	전문가	사무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	전체		
임금노동자		규모	355	4,578	4,418	2,028	1,625	72	1,763	2,103	3,504	20,446		
		학력 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용형태 내%	1.7	22.4	21.6	9.9	7.9	0.4	8.6	10.3	17.1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규모	303	3,409	3,565	714	686	20	933	1,607	726	11,963	
			학력 내%	85.4	74.5	80.7	35.2	42.2	27.2	52.9	76.4	20.7	58.5	
			고용형태 내%	2.5	28.5	29.8	6.0	5.7	0.2	7.8	13.4	6.1	100.0	
		비정규직	규모	52	1,168	853	1,314	938	52	831	496	2,778	8,483	
			학력 내%	14.6	25.5	19.3	64.8	57.8	72.8	47.1	23.6	79.3	41.5	
			고용형태 내%	0.6	13.8	10.1	15.5	11.1	0.6	9.8	5.8	32.7	100.0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규모	1	136	101	237	162	19	166	98	317	1,237
				학력 내%	0.3	3.0	2.3	11.7	10.0	27.1	9.4	4.7	9.0	6.0
				고용형태 내%	0.1	11.0	8.1	19.2	13.1	1.6	13.4	7.9	25.6	100.0
		기간제	규모	38	631	419	325	142	19	240	266	554	2,635	
			학력 내%	10.7	13.8	9.5	16.0	8.7	26.0	13.6	12.7	15.8	12.9	
			고용형태 내%	1.4	24.0	15.9	12.3	5.4	0.7	9.1	10.1	21.0	100.0	
		단시간	상용파트	규모	6	56	92	69	28	2	4	8	50	315
				학력 내%	1.7	1.2	2.1	3.4	1.7	2.9	0.2	0.4	1.4	1.5
			고용형태 내%	1.9	17.8	29.3	22.0	8.8	0.7	1.2	2.4	16.0	100.0	
			임시파트	규모	0	246	174	537	257	5	49	26	930	2,224
		학력 내%	0.1	5.4	3.9	26.5	15.8	7.1	2.8	1.2	26.5	10.9		
		고용형태 내%	0.0	11.1	7.8	24.1	11.6	0.2	2.2	1.2	41.8	100.0		
간접고용	호출노동	규모	0	4	2	60	15	5	303	19	403	812		
		학력 내%	0.0	0.1	0.0	3.0	1.0	6.7	17.2	0.9	11.5	4.0		
		고용형태 내%	0.0	0.5	0.2	7.4	1.9	0.6	37.3	2.4	49.7	100.0		
	용역노동	규모	0	64	12	20	295	2	6	29	67	496		
		학력 내%	0.0	1.4	0.3	1.0	18.2	2.3	0.3	1.4	1.9	2.4		
		고용형태 내%	0.0	13.0	2.5	4.1	59.6	0.3	1.2	5.8	13.6	100.0		
파견노동	규모	1	11	21	15	24	0	19	14	58	164			
	학력 내%	0.4	0.2	0.5	0.8	1.5	0.0	1.1	0.7	1.6	0.8			
	고용형태 내%	0.8	6.6	13.0	9.4	14.6	0.0	11.7	8.8	35.1	100.0			
특수고용	위장자영	규모	5	14	23	43	13	1	38	32	381	552		
		학력 내%	1.5	0.3	0.5	2.1	0.8	0.8	2.2	1.5	10.9	2.7		
		고용형태 내%	1.0	2.6	4.2	7.8	2.4	0.1	6.9	5.8	69.1	100.0		
	재택노동	규모	0	5	9	7	2	0	6	3	17	49		
학력 내%	0.0	0.1	0.2	0.3	0.1	0.0	0.3	0.1	0.5	0.2				
고용형태 내%	0.0	10.5	18.0	13.6	4.5	0.0	12.5	6.2	34.7	100.0				

8. 기업 규모별 특징

비정규직 비율과 기업 규모는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정규직이 30.6%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은 69.4%로 정규직의 두 배 이상이다. 반면, 300명 이상의 기업은 정규직이 84.1%인데 비해, 비정규직이 15.9%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5배 이상 많다.

이는 기업 간 지불 능력 및 인력 운용 방식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산업 효과 때문이기도 하며, 조사 방식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비정규직 비율은 산업 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정규직 비율이 높은 제조업이나 공공부문은 대기업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은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은 영세 사업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구조적 특징이 비정규직 비율과 기업규모 간 역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한편, 대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주화/아웃소싱을 통해 간접고용 형태로 활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업 간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가구조사에서는 대기업의 광범위한 비정규직 활용이 드러나지 않을 개연성도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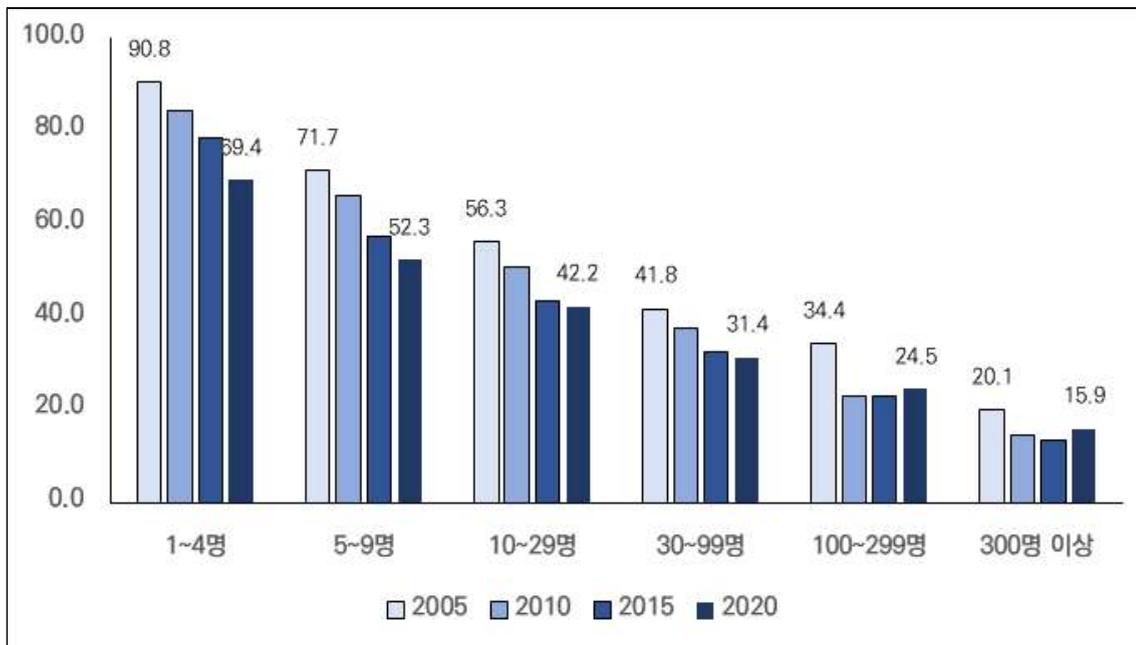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별 비중도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규모가 작을수록 일반임시직, 임시파트타임, 호출노동의 비중이 높다. 반면, 규모가 커질수록 앞의 세 가지 형태의 고용형태 비중은 감소하면서 기간제 비중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2019년과 비교하면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규모가 감소하고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모두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하였다. 4인 이하 사업장은 10만 2천명(-3.9%) 감소하였고, 5~9인 사업장은 10만명(-5.2%)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대규모 감소가 이루어진 것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도 감소하여 전체 임금노동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모두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하였다. 특히, 30~99인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규직도 함께 증가하여 전체 임금노동자 규모가 증가하였다.

[그림 14]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2005~2020)

(단위: %)



<표 11> 기업 규모별 고용형태별 규모와 비율

(단위: 천명, %)

			1~4명	5~9명	10~29명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전체			
임금노동자		규모	3,648	3,511	4,611	3,997	1,979	2,700	20,446			
		학력 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용형태 내%	17.8	17.2	22.6	19.5	9.7	13.2	100.0	10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규모	1,115	1,673	2,667	2,743	1,493	2,272	11,963		
			학력 내%	30.6	47.7	57.8	68.6	75.5	84.1	58.5		
			고용형태 내%	9.3	14.0	22.3	22.9	12.5	19.0	100.0		
		비정규직	규모	2,533	1,838	1,944	1,254	486	428	8,483		
			학력 내%	69.4	52.3	42.2	31.4	24.5	15.9	41.5		
			고용형태 내%	29.9	21.7	22.9	14.8	5.7	5.1	100.0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규모	574	324	212	72	36	19	1,237	
				학력 내%	15.7	9.2	4.6	1.8	1.8	0.7	6.0	
				고용형태 내%	46.5	26.2	17.1	5.8	2.9	1.5	100.0	
			기간제	규모	323	447	663	626	278	297	2,635	
				학력 내%	8.9	12.7	14.4	15.7	14.1	11.0	12.9	
				고용형태 내%	12.3	17.0	25.1	23.8	10.6	11.3	100.0	
		단시간	상용파트	규모	73	70	81	56	21	15	315	
				학력 내%	2.0	2.0	1.8	1.4	1.0	0.5	1.5	
			임시파트	규모	946	479	461	208	65	65	2,224	
				학력 내%	25.9	13.6	10.0	5.2	3.3	2.4	10.9	
		간접고용		호출노동	규모	345	268	148	37	9	5	812
					학력 내%	9.5	7.6	3.2	0.9	0.5	0.2	4.0
					고용형태 내%	42.5	33.0	18.2	4.5	1.2	0.6	100.0
				용역노동	규모	102	156	169	81	33	11	552
					학력 내%	2.8	4.3	4.6	2.2	0.9	0.3	15.1
					고용형태 내%	18.5	28.2	30.7	14.7	6.0	1.9	100.0
				파견노동	규모	25	37	47	33	16	6	164
					학력 내%	0.7	1.0	1.3	0.9	0.4	0.2	4.5
고용형태 내%	15.3				22.3	28.7	20.1	9.8	3.9	100.0		
특수고용		위장자영	규모	114	53	158	140	26	6	496		
			학력 내%	3.1	1.5	3.4	3.5	1.3	0.2	2.4		
			고용형태 내%	22.9	10.7	31.8	28.2	5.2	1.2	100.0		
		재택노동	규모	30	4	7	1	2	5	49		
학력 내%	0.8		0.1	0.2	0.0	0.1	0.1	1.3				
고용형태 내%	61.2		8.6	14.0	2.8	4.3	9.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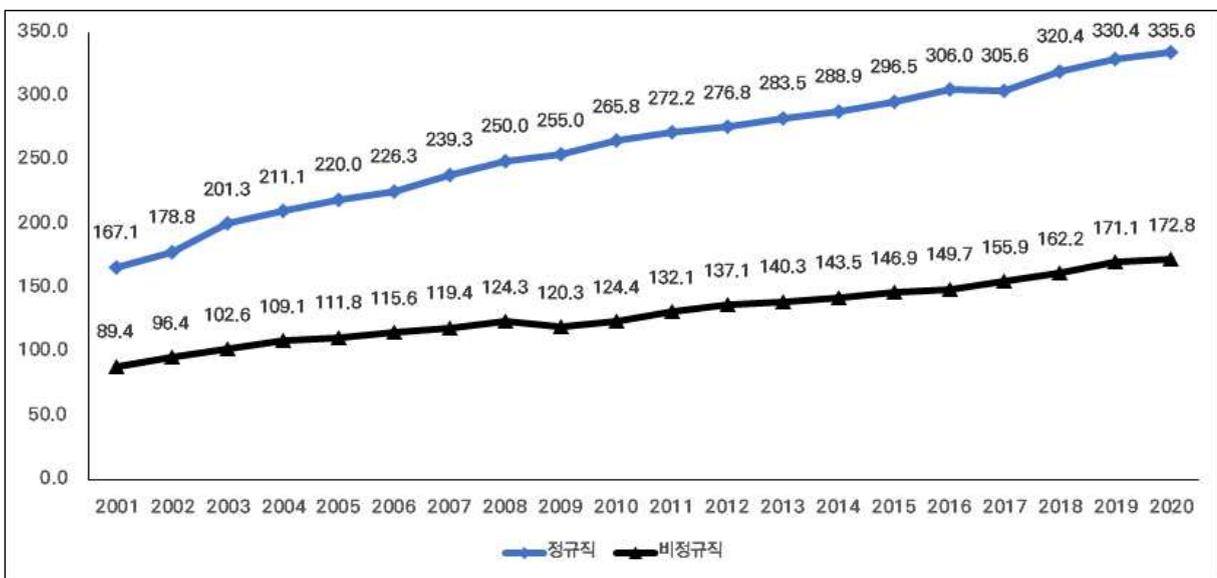
Ⅲ.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1. 임금

2020년 8월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35.6만 원, 비정규직은 172.8만 원이고 전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68.1만 원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비율은 2019년 51.8%에서 2020년 51.5%로 0.3%p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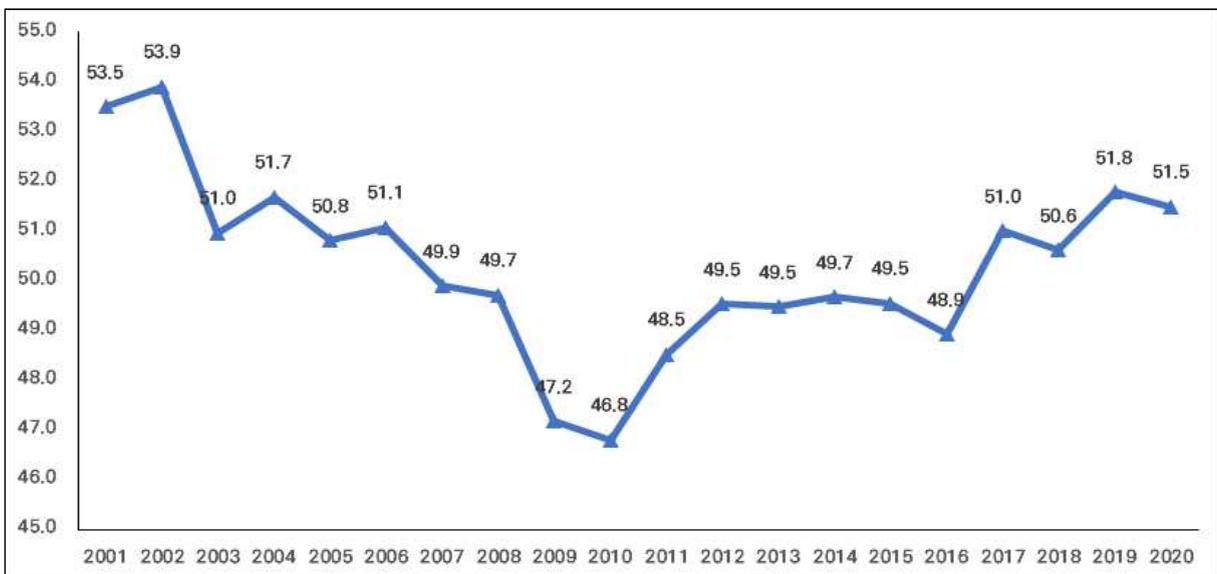
[그림 1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차이

(단위: 만 원)



[그림 16]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월평균 임금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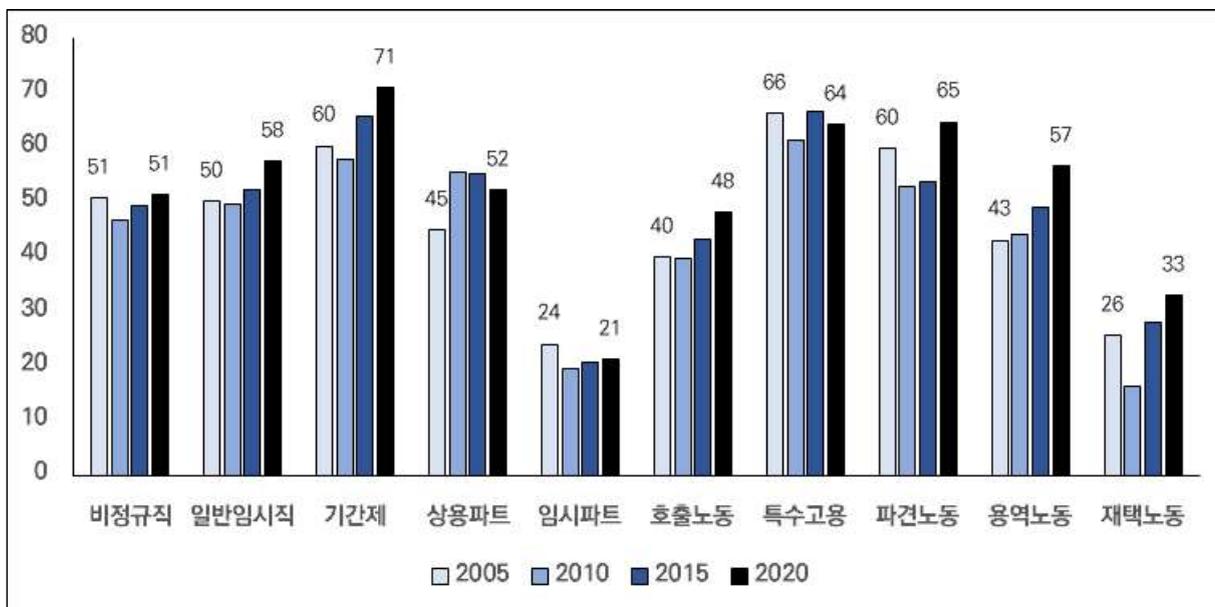
(단위: %)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 중에서는 일반임시직(193.5만 원), 기간제(238.5만 원), 위장자영(215.6만 원), 파견노동(217.3만 원), 용역노동(190.1만 원)의 임금이 비정규직 전체 월평균 임금(172.8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며, 호출노동(161.9만 원)과 재택노동(110.9만 원)은 비정규직 전체 월평균 임금보다 낮다. 상용파트타임은 월 노동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월평균 임금보다 높은 175.5만 원이었으며, 임시파트타임은 71.3만 원으로 전체 비정규직 유형 중에서도 월평균 임금수준이 가장 낮다.

단시간은 근무시간이 전일제에 비하여 짧아서 월평균 임금 또한 낮을 가능성이 크다. 단시간 노동의 급격한 확산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을 낮추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유형의 비정규직과 달리 단시간은 정규직 대비 월평균 임금 비율도 상승하지 않고 있고, 임시파트타임은 적은 노동시간과 맞물려 정규직 대비 월평균 임금이 20%대에 머물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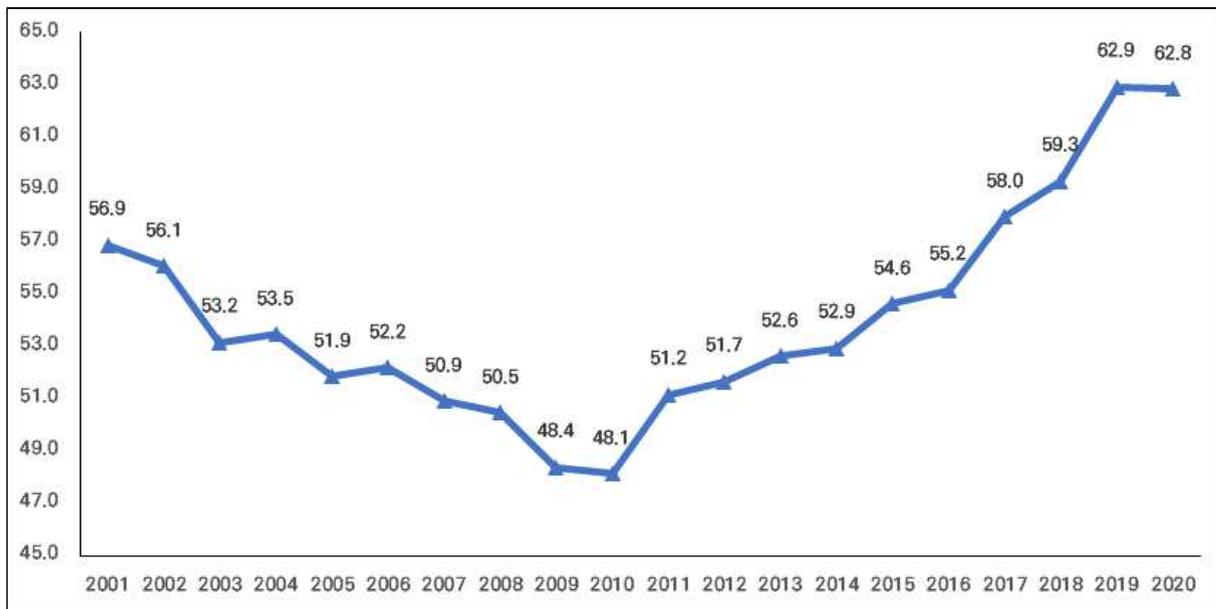
[그림 17]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정규직 대비 월평균 임금 비율 추이 (2005~2020) (단위: %)



월평균 임금과 함께 시간당 임금을 보면,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비율은 2019년 들어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60%를 처음으로 넘어섰는데, 이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0.1%p 감소한 62.8%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8년 16.4%, 2019년 10.9%에서 2020년 2.9%로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더욱 낮아졌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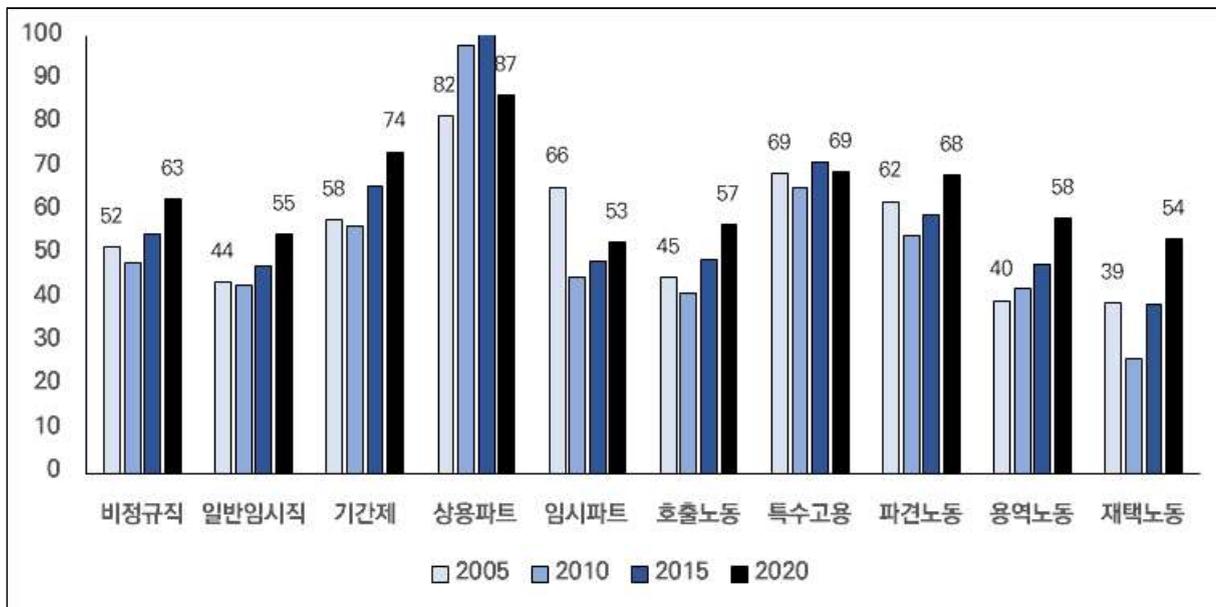
[그림 18]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비율 추이

(단위: %)



[그림 19]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비율 추이 (2005~2020)

(단위: %)



<표 12> 연도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단위: 원)

조사년	임금노동자	정규직 여부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단시간		간접고용			특수고용	
		정규직	비정규직	일반임시	기간제	상용파트	임시파트	호출노동	용역노동	파견노동	위장자영	재택노동
2001	6,105	8,012	4,557	3,996	4,831	13,734	6,924	3,982	3,856	4,965	5,759	3,453
2002	6,503	8,638	4,843	4,273	5,368	13,030	7,482	4,278	3,883	5,405	6,284	3,446
2003	7,309	9,868	5,246	4,679	5,589	16,325	6,825	5,351	3,977	5,481	6,847	2,929
2004	7,817	10,555	5,644	4,879	6,188	7,433	7,193	4,908	4,331	6,756	7,481	3,735
2005	8,174	11,198	5,806	4,906	6,506	9,168	7,343	5,012	4,433	6,972	7,688	4,385
2006	8,597	11,650	6,080	5,312	7,033	12,161	7,277	5,000	4,421	6,356	7,999	4,115
2007	9,146	12,446	6,335	5,398	7,768	8,947	6,852	5,440	4,942	7,234	8,354	3,566
2008	9,826	13,235	6,679	5,667	8,133	8,784	7,221	5,661	5,408	7,859	8,836	3,979
2009	10,053	13,722	6,639	5,864	7,664	8,462	6,514	5,666	5,564	8,099	8,841	4,312
2010	10,641	14,381	6,924	6,215	8,165	14,094	6,446	5,957	6,115	7,850	9,392	3,803
2011	11,253	14,814	7,579	6,522	9,176	13,189	7,429	6,195	6,356	8,494	10,596	4,462
2012	11,758	15,264	7,886	6,788	10,069	11,533	6,717	6,782	6,527	9,793	10,531	5,555
2013	12,256	15,637	8,232	7,054	10,199	13,248	7,417	7,196	7,193	8,690	10,541	4,612
2014	12,527	15,915	8,425	7,370	10,280	11,933	7,296	7,684	7,329	8,613	11,902	3,937
2015	12,911	16,192	8,846	7,668	10,666	16,755	7,884	7,898	7,725	9,594	11,543	6,285
2016	13,456	16,793	9,263	7,883	11,588	14,177	8,117	8,462	8,298	10,229	11,871	6,587
2017	13,714	16,681	9,670	8,334	11,640	14,004	8,614	9,325	8,495	10,837	12,247	7,111
2018	14,599	17,505	10,384	8,900	12,271	15,073	9,482	9,928	9,368	11,396	11,542	7,596
2019	15,266	18,043	11,354	9,831	12,785	16,310	10,174	10,853	10,116	11,925	13,082	8,399
2020	15,618	18,465	11,604	10,086	13,592	16,005	9,760	10,543	10,800	12,628	12,756	9,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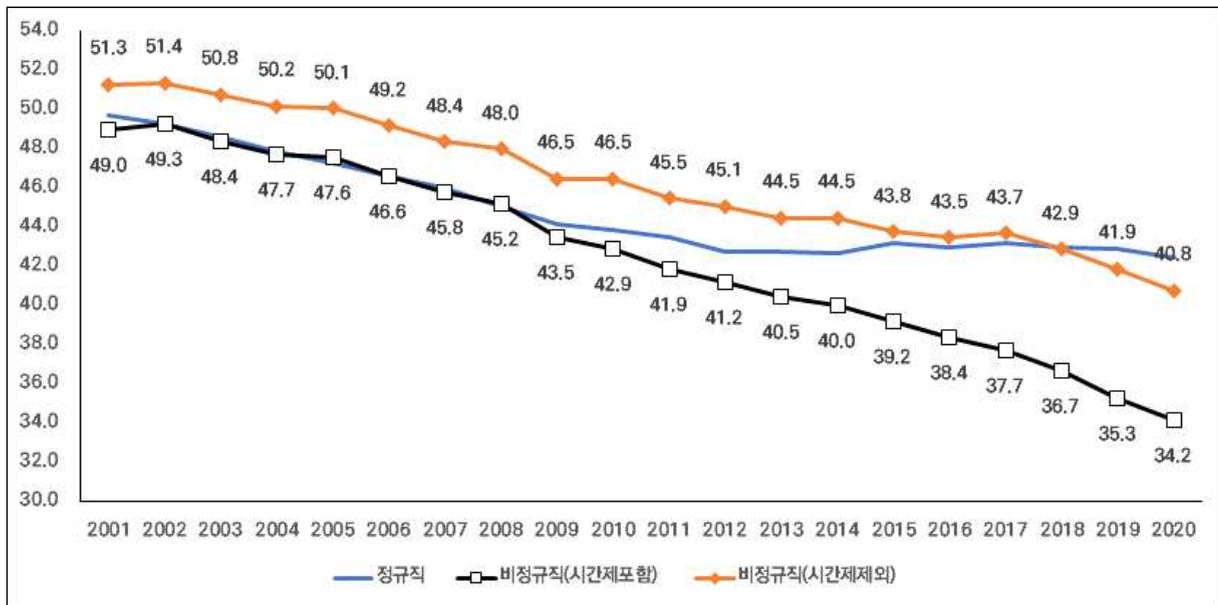
2. 노동시간

단시간을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34.2시간으로 정규직의 42.5시간보다 8.3시간 짧다. 하지만, 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40.8시간으로 정규직보다 1.7시간 짧다.

장기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2012년 이후 동향을 보면, 정규직은 42~43시간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은 2020년까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림 2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 추이 (200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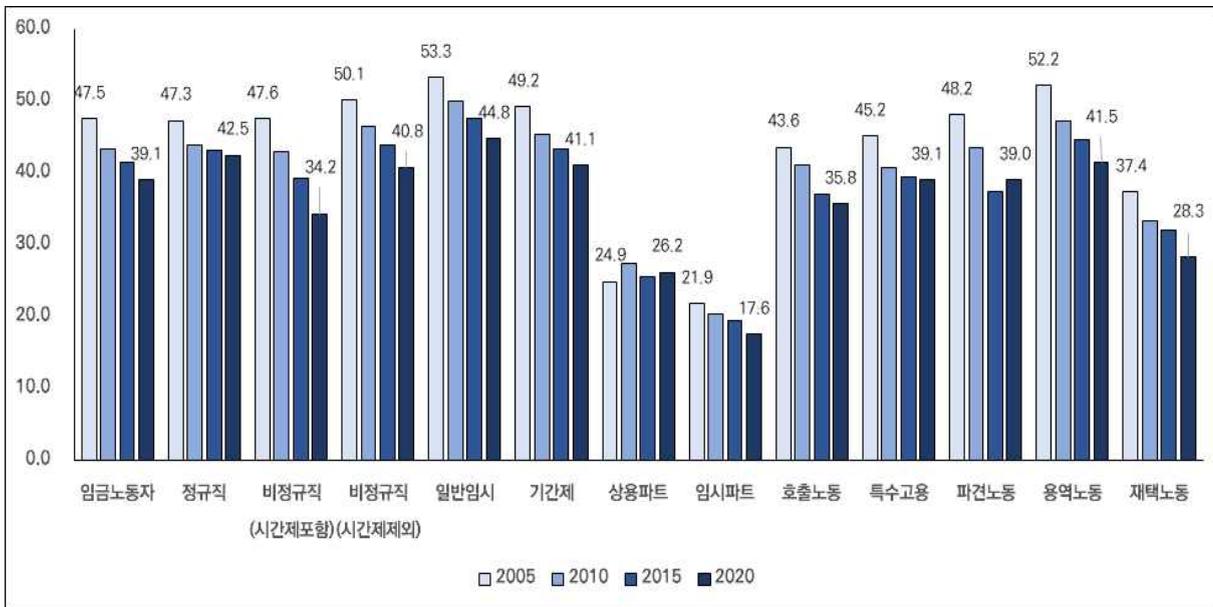
(단위: 시간)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별 노동시간을 보면, 일반임시직이 44.8시간으로 가장 길고 용역노동(41.5시간)과 기간제(41.1시간)는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상회하고 나머지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다. 특히, 임시파트타임은 주당 노동시간이 17.6시간으로 2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며, 상용파트타임은 26.2시간으로 임시파트타임보다 8.6시간이 길다.

[그림 21]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추이 (2005~2020)

(단위: 시간)



<표 13> 연도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단위: 시간)

조사년	임금노동자	정규직 여부			비정규직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제외)	임시직		단시간		간접고용			특수고용	
					일반임시	기간제	상용파트	임시파트	호출노동	용역노동	파견노동	위장자영	재택노동
2001	49.3	49.7	49.0	51.3	53.7	50.9	19.9	21.6	45.4	52.3	48.8	46.1	39.0
2002	49.3	49.3	49.3	51.4	53.3	50.4	22.5	21.5	46.5	54.3	50.9	47.4	39.4
2003	48.5	48.6	48.4	50.8	53.2	50.1	26.9	22.7	44.7	54.1	49.1	45.3	39.2
2004	47.8	47.9	47.7	50.2	53.2	49.7	25.8	22.6	44.1	52.9	48.0	44.8	37.1
2005	47.5	47.3	47.6	50.1	53.3	49.2	24.9	21.9	43.6	52.2	48.2	45.2	37.4
2006	46.6	46.6	46.6	49.2	52.4	48.3	29.8	21.2	42.9	51.9	47.6	41.4	38.0
2007	45.9	46.0	45.8	48.4	51.8	47.6	24.9	21.3	41.3	51.0	46.0	41.7	35.8
2008	45.1	45.1	45.2	48.0	51.1	47.2	27.1	21.1	42.2	49.6	44.2	41.8	30.4
2009	43.9	44.2	43.5	46.5	50.5	45.3	27.9	20.6	40.6	49.0	41.3	41.1	33.0
2010	43.4	43.9	42.9	46.5	50.0	45.3	27.4	20.4	41.1	47.2	43.6	40.8	33.4
2011	42.7	43.5	41.9	45.5	49.5	44.0	26.1	19.5	40.6	46.6	42.8	39.7	31.9
2012	42.0	42.8	41.2	45.1	48.9	43.7	27.5	20.0	40.0	47.0	39.1	39.8	33.2
2013	41.7	42.8	40.5	44.5	48.6	43.2	27.4	20.3	39.5	45.5	39.3	39.9	32.1
2014	41.5	42.7	40.0	44.5	47.9	43.5	27.7	20.2	38.4	45.2	40.7	40.6	36.0
2015	41.4	43.2	39.2	43.8	47.5	43.4	25.6	19.5	37.0	44.7	37.5	39.5	32.1
2016	40.9	43.0	38.4	43.5	47.1	42.8	26.6	19.8	38.0	43.5	39.1	39.3	30.1
2017	40.9	43.2	37.7	43.7	47.5	42.9	27.1	19.5	37.7	43.8	39.3	40.2	27.8
2018	40.4	43.0	36.7	42.9	46.8	42.2	27.0	18.7	37.3	43.2	39.7	40.3	31.4
2019	39.8	42.9	35.3	41.9	46.4	41.7	26.2	18.2	36.3	42.1	39.8	38.9	28.1
2020	39.1	42.5	34.2	40.8	44.8	41.1	26.2	17.6	35.8	41.5	39.0	39.1	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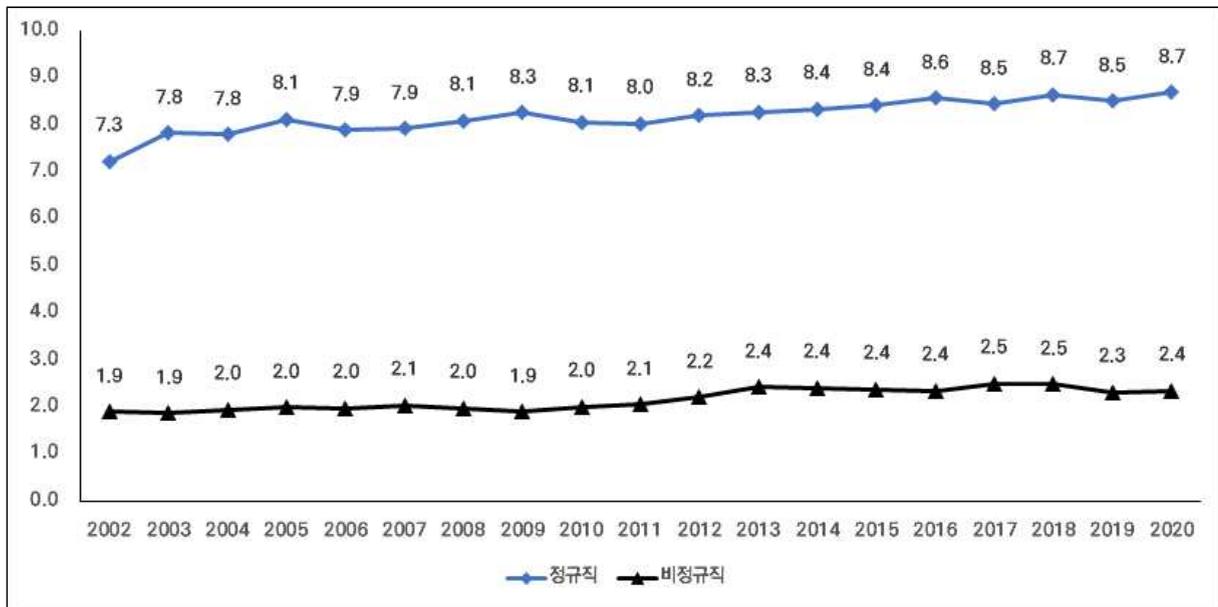
3. 근속기간

2020년 8월 비정규직의 현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2년 4개월이다. 반면, 정규직의 근속기간은 8년 7개월로 비정규직보다 3배 이상 그리고 5년 3개월이 길다.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은 2019년에 2018년보다 2개월이 줄어들었다가 2020년에 다시 1개월 늘어나 2년 4개월이 되었다.

[그림 2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속기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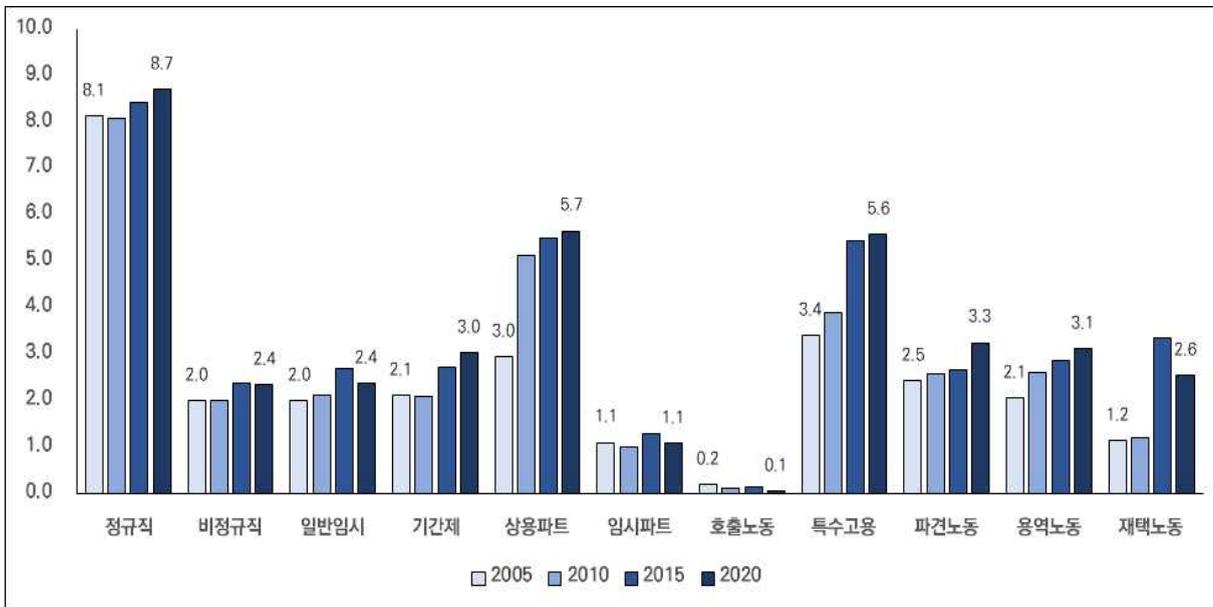
(단위: 년, 개월)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 중에서는 호출노동이 1개월로 가장 짧다. 임시파트타임은 1년 1개월로 근속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하다. 일반임시직 2년 4개월, 재택노동 2년 6개월, 기간제 3년, 용역노동 3년 1개월, 파견노동 3년 3개월로 임시파트타임에 비해서는 길다. 특히, 위장자영과 상용파트타임은 각각 5년 6개월, 5년 7개월로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 중 근속기간이 가장 길다.

[그림 23] 고용형태별 근속기간 추이 (2005~2020)

(단위: 년, 개월)



<표 14> 연도별 고용형태별 근속기간

(단위: 년, 개월)

조사년	임금노동자	정규직 여부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단시간		간접고용			특수고용		
		정규직	비정규직	일반임시	기간제	상용파트	임시파트	호출노동	용역노동	파견노동	위장자영	재택노동	
2001													
2002	4.2	7.3	1.9	2.0	1.8	3.7	1.3	0.0	2.3	1.9	3.0	2.1	
2003	4.5	7.8	1.9	2.1	1.9	4.2	1.1	0.1	2.2	2.1	2.8	1.2	
2004	4.5	7.8	2.0	2.1	2.2	3.0	1.1	0.2	2.1	2.3	3.2	1.5	
2005	4.6	8.1	2.0	2.0	2.1	3.0	1.1	0.2	2.1	2.5	3.4	1.2	
2006	4.6	7.9	2.0	2.0	2.3	3.1	1.1	0.3	2.2	2.0	3.0	1.2	
2007	4.7	7.9	2.1	2.0	2.6	4.6	1.1	0.2	2.2	2.1	3.0	1.4	
2008	4.9	8.1	2.0	2.0	2.4	3.8	1.0	0.2	2.2	2.5	3.4	1.1	
2009	5.1	8.3	1.9	2.1	2.1	3.3	1.0	0.1	2.1	2.2	3.5	1.0	
2010	5.1	8.1	2.0	2.1	2.1	5.2	1.0	0.1	2.6	2.6	3.9	1.2	
2011	5.1	8.0	2.1	2.2	2.6	4.9	1.2	0.2	2.5	3.1	4.2	1.1	
2012	5.4	8.2	2.2	2.2	2.8	4.6	1.4	0.2	2.7	2.9	4.7	1.4	
2013	5.7	8.3	2.4	2.6	2.9	5.6	1.4	0.1	3.0	3.0	5.1	2.2	
2014	5.7	8.4	2.4	2.6	2.7	5.5	1.4	0.1	3.1	2.7	5.9	2.2	
2015	5.8	8.4	2.4	2.7	2.7	5.5	1.3	0.2	2.9	2.7	5.5	3.4	
2016	5.9	8.6	2.4	2.4	2.8	4.9	1.6	0.1	3.0	3.1	5.9	1.5	
2017	6.0	8.5	2.5	2.8	2.8	4.8	1.5	0.1	3.1	3.4	6.1	2.3	
2018	6.1	8.7	2.5	2.8	2.9	4.6	1.4	0.1	2.9	3.6	6.3	1.4	
2019	6.1	8.5	2.3	2.6	2.7	5.2	1.2	0.1	2.6	3.4	5.6	1.7	
2020	6.2	8.7	2.4	2.4	3.0	5.7	1.1	0.1	3.1	3.3	5.6	2.6	

4. 사회보험과 부가급부

임금뿐 아니라 사회보험 및 부가급부 적용률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매우 크다. 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국민연금 94.2%, 건강보험 98.7%, 고용보험 84.8%이지만,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국민연금 35.4%, 건강보험 45.8%, 고용보험 43.0%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절반 수준이다.

부가급부 적용률은 정규직이 퇴직금 99.5%, 상여금 91.7%, 시간외수당 67.6%, 유급휴가 89.2%이지만, 비정규직은 퇴직금 36.2%, 상여금 36.5%, 시간외수당 25.1%, 유급휴가 30.1%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의 부가급부 적용률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내에서도 절반이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및 부가급부 적용률은 개선 속도가 매우 느리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2004년 30%를 넘어선 이후 여전히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2004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40%를 넘지 못하고 30%대에 머물러 있다가 2017년 40%를 넘어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0년 45.8%이다. 고용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2017년 40%를 넘어섰지만, 건강보험처럼 증가하진 못하고 2020년 43.0%이다.

퇴직금 적용률은 2012년 처음으로 30%에 도달하고 2020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40%를 넘지 못하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1%p 감소한 36.2%이다. 상여금 적용률도 2010년 30%를 넘어섰으나 현재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20년 현재 36.5%이다. 시간외수당은 2018년 처음으로 20% 넘었으며, 2020년 25.1%이다. 유급휴가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20%대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20년에 들어서 전년보다 3.0%p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30.1%이다.

비정규직 세부 형태 중에는 일반임시직, 임시파트타임, 호출노동, 위장자영, 재택노동의 사회보험 및 부가급부 적용률이 낮다. 특히, 호출노동의 적용률은 고용보험(6.1%), 상여금(2.1%), 시간외수당(7.5%)을 제외하고는 1% 미만이다. 위장자영은 상여금(16.4%)을 제외하고는 모두 10% 미만의 적용률을 보인다. 임시파트타임은 퇴직금(5.7%)과 유급휴가(5.1%)를 제외하고는 다른 항목에서는 10%대의 낮은 적용률을 보인다. 재택노동은 시간외수당(1.8%)을 제외하고는 10%~30%대의 낮은 적용률을 보인다.

다. 일반임시직은 앞의 네 고용형태보다는 높은 적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 비정규직의 평균 적용률보다 낮은 적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15>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 비율

(단위: %)

구분	고용형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임금노동자 전체			69.8	76.7	67.5
정규직 여부		정규직	94.2	98.7	84.8
		비정규직	35.4	45.8	43.0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27.0	31.6	32.5
		기간제	69.3	84.0	76.9
	단시간	상용파트	73.0	94.6	81.1
		임시파트	11.5	16.8	18.3
	간접고용	호출노동	0.4	0.5	6.1
		용역노동	40.5	81.0	61.8
		파견노동	58.8	76.0	72.5
	특수고용	위장자영	4.6	4.9	7.4
		재택노동	21.3	19.2	22.6

<표 16>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가입 유형별 비율

(단위: %)

구분	고용형태		직장가입	지역가입	미가입
임금노동자 전체			69.8	6.5	23.7
정규직 여부		정규직	94.2	0.7	5.1
		비정규직	35.4	14.6	50.0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27.0	22.9	50.1
		기간제	69.3	5.6	25.1
	단시간	상용파트	73.0	2.6	24.3
		임시파트	11.5	11.0	77.6
	간접고용	호출노동	0.4	31.6	68.0
		용역노동	40.5	6.5	53.0
		파견노동	58.8	6.5	34.8
	특수고용	위장자영	4.6	50.7	44.7
		재택노동	21.3	9.2	69.5

<표 17> 고용형태별 건강보험 가입 유형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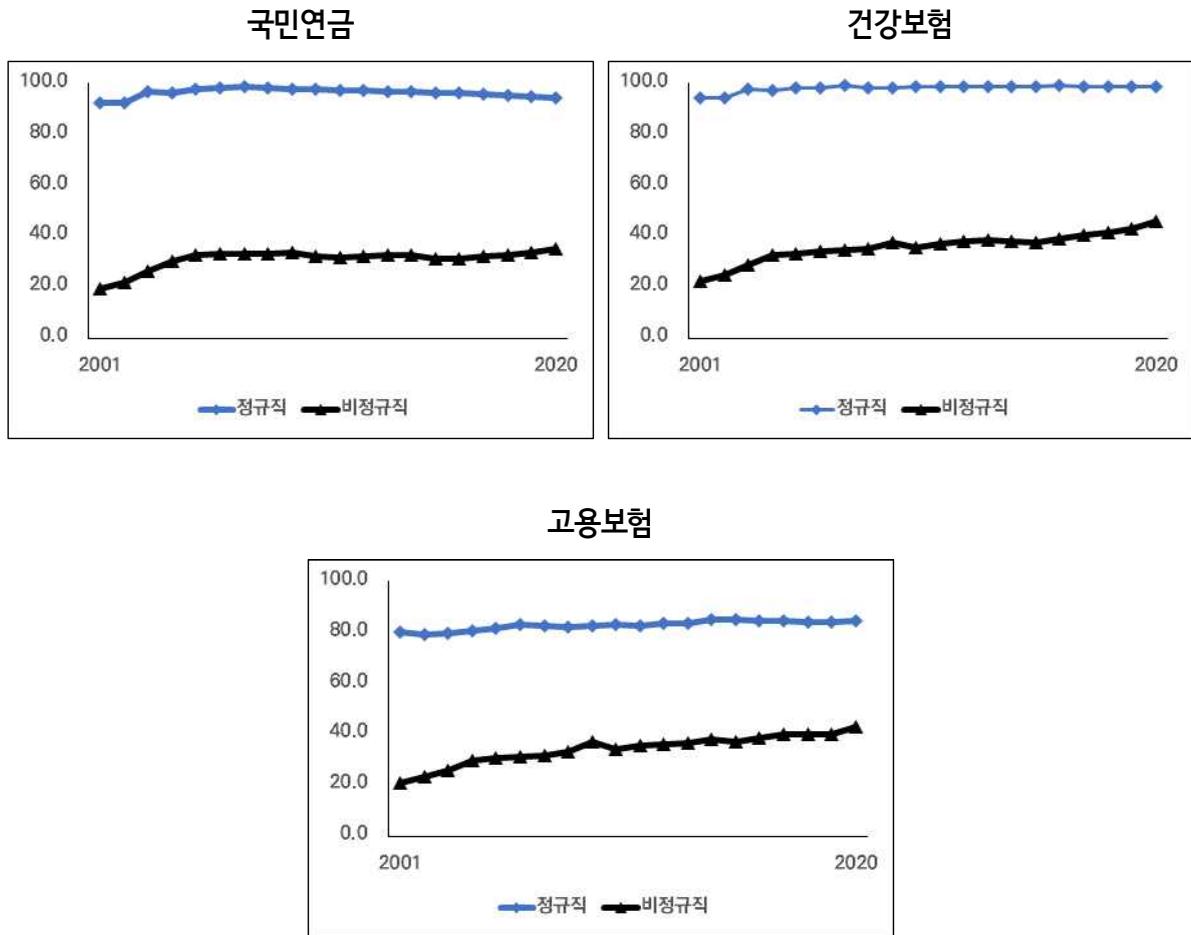
구분	고용형태		직장가입	지역가입	의료 수급권자	직장가입 피부양자	미가입
임금노동자 전체			76.7	11.5	0.7	10.0	1.1
정규직 여부		정규직	98.7	0.9	0.1	0.3	0.0
		비정규직	45.8	26.4	1.6	23.5	2.6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31.6	39.8	0.9	23.4	4.3
		기간제	84.0	8.3	0.9	5.6	1.2
	단시간	상용파트	94.6	2.1	0.6	2.0	0.7
		임시파트	16.8	26.9	3.2	49.6	3.5
	간접고용	호출노동	0.5	62.3	1.9	30.0	5.2
		용역노동	81.0	10.1	0.2	7.8	1.0
		파견노동	76.0	10.2	2.2	11.0	0.6
	특수고용	위장자영	4.9	67.5	1.2	24.7	1.7
		재택노동	19.2	26.4	4.7	44.1	5.6

<표 18> 고용형태별 부가급부 적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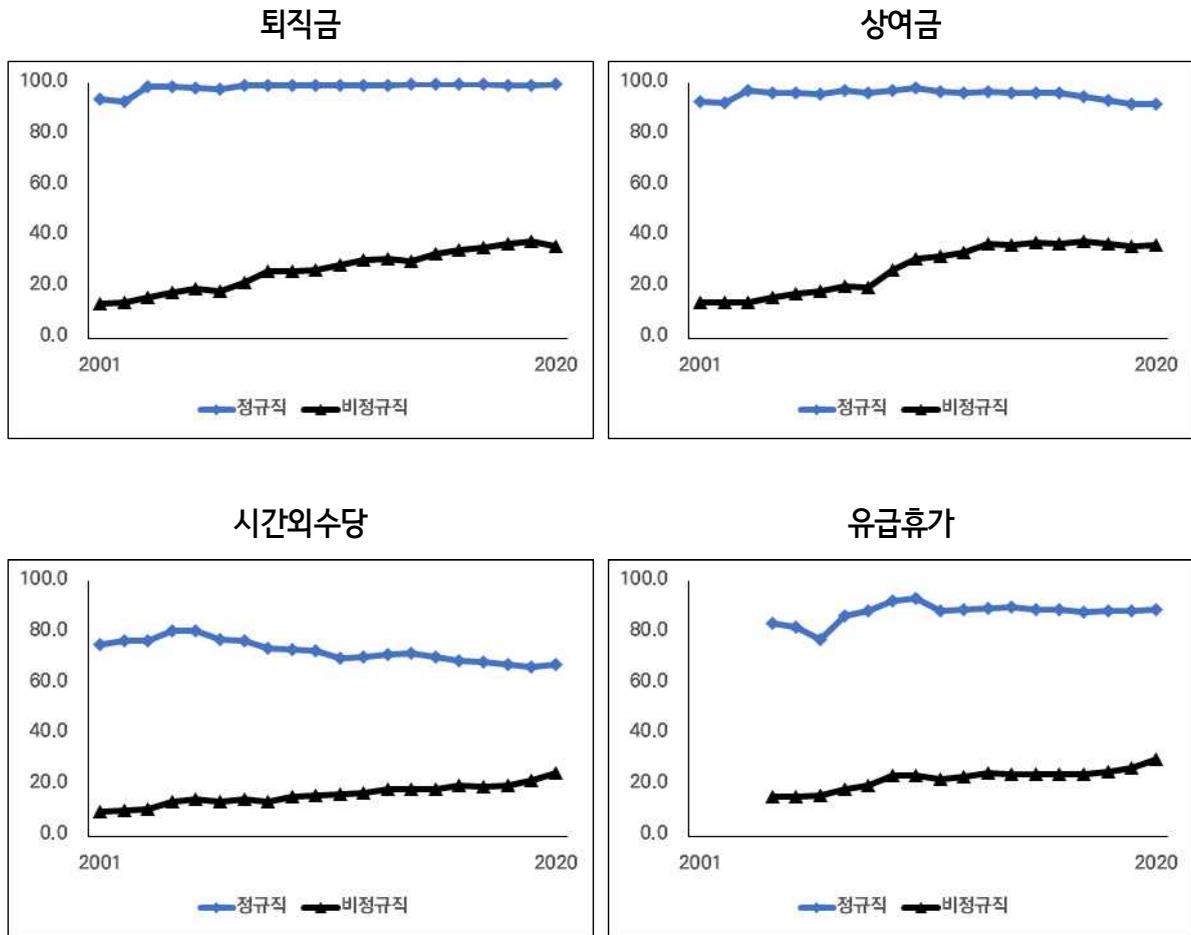
(단위: %)

구분	고용형태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임금노동자 전체			73.2	68.8	50.0	64.6
정규직 여부		정규직	99.5	91.7	67.6	89.2
		비정규직	36.2	36.5	25.1	30.1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16.8	35.9	14.2	11.1
		기간제	71.9	60.1	45.8	63.0
	단시간	상용파트	97.5	83.7	47.1	67.8
		임시파트	5.7	13.7	10.8	5.1
	간접고용	호출노동	0.1	2.1	7.5	0.5
		용역노동	70.2	55.3	38.4	54.6
		파견노동	70.5	51.0	47.1	62.2
	특수고용	위장자영	4.7	16.4	1.8	2.7
		재택노동	15.3	31.0	1.8	17.1

[그림 2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 추이



[그림 2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부과급부 적용률 추이



5. 노동조합 조직률

임금노동자 전체 노조 조직률은 12.3%이며,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5%로 정규직 노조 조직률 19.2%에 비해 매우 낮다. 그런데 유노조 사업장에서 일하고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을 보면, 정규직은 10.0%, 비정규직은 2.0%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훨씬 낮다. 대신 비정규직은 무노조사업장 비율(87.3%)과 가입 대상이 아닌 비율(8.1%)이 정규직(64.4%, 6.4%)보다 높다. 이는 제도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 기회를 확대하면 노조 조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 조직률의 장기 추세를 보면, 비정규직은 정체된 모습을 보이지만, 정규직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2013년 21.1%에서 2020년 19.2%까지 약 1.9%p가 꾸준히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시기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2013년 2.1%에서 2020년 2.5%로 0.4%p 증가했다.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 중에서는 호출노동, 재택노동, 임시파트타임, 위장자영, 일반임시직의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다. 호출노동과 재택노동은 심지어 0.0%로 조사가 되었으며, 임시파트타임, 위장자영, 일반임시직도 각각 1.0%, 0.4%, 0.4%로 매우 낮다. 반면, 상용파트타임은 8.0%로 작년보다 1.0%p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 중에서도 높은 노조 조직률을 보인다. 이는 고용안정성이 노조 가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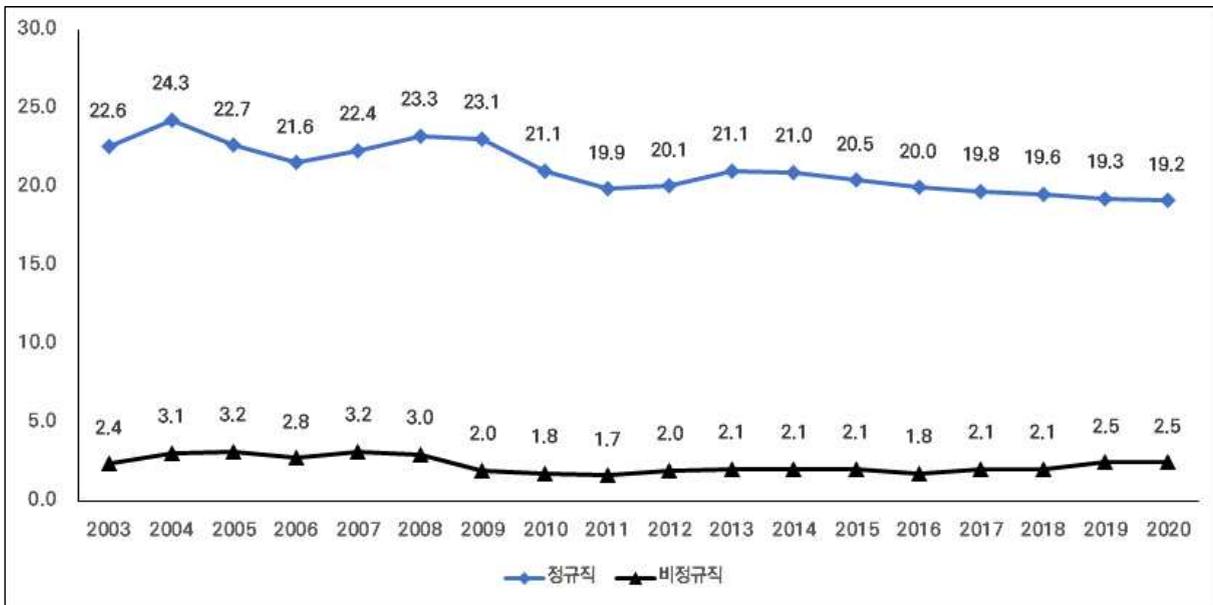
<표 19>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단위: %)

구분	고용형태		무노조사업장 (노조 없음)	유노조 사업장		
				가입대상아님	미가입	노조가입
임금노동자 전체			73.9	7.1	6.7	12.3
정규직 여부	정규직		64.4	6.4	10.0	19.2
	비정규직		87.3	8.1	2.0	2.5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96.3	1.9	0.8	1.0
		기간제	77.3	13.4	4.2	5.1
	단시간	상용파트	80.7	5.2	6.1	8.0
		임시파트	89.2	9.6	0.7	0.4
	간접고용	호출노동	98.4	1.6	0.0	0.0
		용역노동	90.4	4.7	1.3	3.7
		파견노동	84.6	2.5	5.7	7.1
	특수고용	위장자영	92.0	7.5	0.0	0.4
		재택노동	95.4	1.6	3.0	0.0

[그림 2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단위: %)



6. 기타 노동조건

2020년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은 정규직이 62.5%, 비정규직이 37.6%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7년부터 정규직은 감소하고 있고 비정규직은 정체되었다. 비정규직의 세부 형태 중에서는 호출노동(11.2%), 일반임시직(16.9%), 재택노동(26.9%), 임시파트타임(35.8%)이 비정규직 평균보다 낮다. 반면, 위장자영(53.1%)과 기간제(52.1%)는 50%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정규직이 80.2%, 비정규직이 65.4%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정규직의 세부 형태 중에서는 호출노동(13.5%)과 재택노동(31.2%), 일반임시직(38.7%)이 비정규직 평균보다 낮다. 반면, 파견노동(87.5%), 기간제(89.1%), 용역노동(89.4%)은 정규직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20> 고용형태별 교육훈련 경험,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단위: %)

구분	고용형태		교육훈련	근로계약서
임금노동자 전체			52.2	74.0
정규직 여부	정규직		62.5	80.2
	비정규직		37.6	65.4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16.9	38.7
		기간제	52.1	89.1
	단시간	상용파트	43.4	78.4
		임시파트	35.8	63.7
	간접고용	호출노동	11.2	13.5
		용역노동	40.8	89.4
		파견노동	49.5	87.5
	특수고용	위장자영	53.1	60.0
재택노동		26.9	31.2	

고용형태별 임금형태를 보면, 정규직은 월급제가 68.7%, 연봉제가 27.9%로 둘을 합친 값이 96.6%에 달한다. 반면, 비정규직은 임금형태가 훨씬 다양하다. 월급제가 46.5%로 가장 높기는 하지만, 시급제(22.6%), 일급제(16.2%), 실적급제(8.1%)의 비율도 높고 연봉제(5.8%)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 비정규직의 임금형태가 다

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세부 고용형태별로 주된 임금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임시직, 기간제, 상용파트타임, 용역노동, 파견노동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월급제의 비중이 60.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갖는다. 하지만, 임시파트타임의 경우 시급제가 57.9%로 월급제의 비율 31.1%보다도 26.8% 높다. 호출노동은 일급제가 85.2%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위장자영은 실적급제 비율이 100.0%로 조사되었다. 재택노동은 실적급제가 36.6%로 가장 높지만, 시급제와 월급제도 각각 22.1%, 29.5%씩 높은 비율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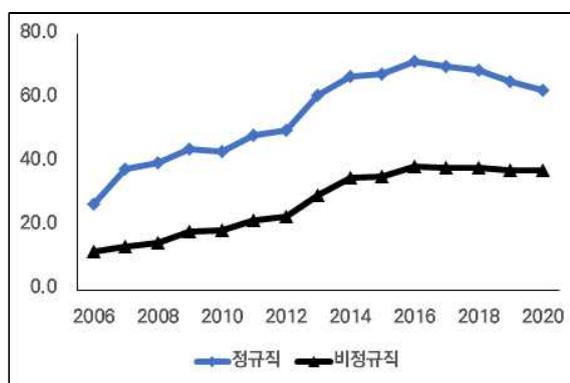
<표 21> 고용형태별 임금형태 비율

(단위: %)

구분	고용형태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임금노동자 전체		10.5	7.1	0.3	59.5	18.7	3.8	0.0	
정규직 여부	정규직	1.9	0.6	0.0	68.7	27.9	0.8	0.1	
	비정규직	22.6	16.2	0.8	46.5	5.8	8.1	0.0	
비정규직 고용형태	임시직	일반임시직	10.4	14.2	1.7	66.3	0.1	7.1	0.0
		기간제	9.5	9.0	0.3	63.9	16.1	1.1	0.1
	단시간	상용파트	17.5	0.8	0.7	68.8	11.2	0.9	0.2
		임시파트	57.9	8.2	1.2	31.1	0.0	1.6	0.0
	간접고용	호출노동	12.9	85.2	0.7	0.0	0.0	1.2	0.0
		용역노동	10.6	10.9	0.5	75.2	2.4	0.4	0.0
		파견노동	12.3	12.6	0.0	61.9	9.1	4.1	0.0
	특수고용	위장자영	0.0	0.0	0.0	0.0	0.0	100.0	0.0
		재택노동	22.1	6.0	0.0	29.5	5.8	36.6	0.0

[그림 27]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기타 노동조건 추이

교육훈련 경험 비율



부록. 분석개요

통계청에서는 2000년 시범 조사를 바탕으로, 2001년부터 매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부가조사를 시행해왔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부가조사를 시행해 오다가 2014년부터는 다시 8월에만 부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형태 범위와 유형을 둘러싸고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정부 사이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는 2001년 8월부터 통계청 부가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고용형태 분류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고용형태 규모와 각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조건을 재분석하여 이를 매년 7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통계자료집 형식으로 발간해 왔다. 통계청의 2020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도 지난해까지 사용한 부가조사의 틀과 문항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통계자료집에서도 기존 자료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고용형태 분류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1. 고용형태 분류원칙

고용형태는 2001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정한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류하고 있다. 고용형태는 총 10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1) 정규직, (2) 일반임시직, (3) 기간제, (4) 상용파트타임, (5) 임시파트타임, (6) 호출노동, (7) 위장자영, (8) 파견노동, (9) 용역노동, (10) 재택노동이다.

구체적인 처리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종사자 지위에 해당하는 문항의 답이 ‘상용노동자’에 해당되는 경우 ‘정규직’으로, ‘임시노동자’나 ‘일용노동자’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임시직’으로 기초분류를 하였다. 다음으로 부가조사항목에서 계약기간의 반복갱신 여부를 묻는 문항(문 41)에 응답한 경우 ‘기간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하였으나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문 45) 항목에서 개인적인 사유(문 45, 문항 답 7~9) 또는 직장의 경영상 이유(문 45, 문항 답 10) 및 기타(문 45, 문항 답 11)가 아닌 다른 임의적인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답한 경우(문 45, 문항 답 1~6), 종사상 지위가 ‘상용노동자’ 혹은 ‘일반임시직’에 해당하더라도 ‘기간제’로 재분류하였다(2003년까지의 경우 부가조사 45번 문항 답 2~6번에 응답한 경우 ‘일반임시직’으로 분류하였으나 업무의 한시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하여 2004년부터 ‘기간제’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까지 정규직, 일반임시직, 기간제를 우선 기본적으로 분류한 상태에서 중복을 제외하기 위하여 1차 분류된 자료를 토대로 재분류를 하였다. 시간제 노동 여부를 묻는 문항(부46)에 시간제 노동이라고 답한 경우(문항 답 2) 종사상 지위가 ‘상용노동자’인 경우에는 ‘상용파트타임’으로, ‘임시노동자’나 ‘일용노동자’인 경우는 ‘임시파트타임’으로 재분류하였다. 이후 호출노동, 위장자영,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을 문항 순서에 따라 각 고용형태를 추출하였다.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산업 및 직업분류는 9차 개정 분류를 따른다.

2. 용어해설

● 정규직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 관계로 노동법상 해고 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 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정의된다.

이번 통계분석에서 ‘정규직’은 종사상 지위가 ‘상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노동자 가운데 일반임시직, 기간제, 파트타임, 호출노동, 위장자영,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를 말한다.

● 일반임시직

임시직의 정의는 일정한 사업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노동이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으로 고용 관계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속 노동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로 정의된다. 임시직 중에서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전자를 일반임시직으로 후자를 기간제로 정의한다.

이번 통계분석에서 ‘일반임시직’은 본조사의 종사상 지위가 ‘임시노동자’ 또는 ‘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해당한다.

기간제, 상용·임시파트타임, 호출노동, 위장자영,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 기간제

기간제는 종사상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노동자 중 고용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며, 여기에는 계약의 반복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 통계분석에서 ‘기간제’는 “(노동 기간을 정했다면) 현재 계약은 반복·갱신된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한 경우의 노동자와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없다는 사유(문45)로 1~6번에 응답한 경우가 해당된다.

상용·임시파트타임, 호출노동, 위장자영,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 상용파트타임

시간제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노동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소정 노동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노동자로 정의된다.

이번 통계분석에서 ‘상용파트타임’은 종사상 지위가 ‘상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노동자 중에서 시간제로 일한다고 응답한 노동자에 해당된다.

기간제, 호출노동, 위장자영,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 임시파트타임

이번 통계분석에서 ‘임시파트타임’은 종사상 지위가 ‘임시노동자’ 또는 ‘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노동자 중에서 시간제로 일한다고 응답한 노동자에 해당된다.

호출노동, 위장자영,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 호출노동

노동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노동자로 정의되며, 통계청에서는 이를 ‘일일노동자’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번 통계분석에서 ‘호출노동’ 은 “(노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난주 일자리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한다.

위장자영,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 위장자영

위장자영은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못하면서, 또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노동 제공의 방법, 노동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경우로 정의된다.

이번 통계분석에서 ‘위장자영’ 은 “지난주에 다니던 직장(일)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한다.

파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 파견노동

파견노동은 고용업체(임금 또는 급여 지급업체)와 근무하고 있는 업체(직장)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임금(급여)은 원래 소속된 업체(파견업체)에서 받지만, 근무는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이번 통계분석에서 ‘파견노동’ 은 “임금(급여)을 지난주 일한 직장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파견업체” 라고 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한다.

재택노동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 용역노동

용역노동은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임금(급여)을 받고 있으며, 업무상 지휘 감독도 고용업체의 관리하에 있으면서,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형태로 정의된다.

이번 통계분석에서 ‘용역노동’은 “임금(급여)을 지난주 일한 직장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용역업체”라고 답한 경우의 노동자를 말한다.

재택노동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 재택노동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직업)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정의되며, 대상자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집 또는 인근 남의 가정에 모여서 작업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번 통계분석에서 ‘재택노동’은 “지난주에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가정에서”라고 응답한 노동자를 말한다.

3. 산업별 분류 코드

분류코드	산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